
궐동 1인 가구 밀집지역 “로컬브랜딩지역재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2025. 10.



오산시의회
OSAN CITY COUNCIL

제 출 문

오산시의회 귀하

본 결과보고서를

<궐동1인 가구밀집지역 “로컬브랜딩지역재생” 연구용역>의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전 철 원

목차

CHAPTER 1 연구개요

1.1 연구 개요 1p

1.2 연구 추진 내용 2p

CHAPTER 2 주요 사업 내용

2.1 1인 가구 현황 지역조사 5p

2.2 전문가 자문회의 21p

2.3 유사지역 우수사례 현장조사 26p

CHAPTER 3 제안

3.1 지역 이슈 27p

3.2 지역 브랜딩 29p

CHAPTER 4 부록

4.1 FGI 37p


4.2 전문가 자문회의 70p

CHAPTER 1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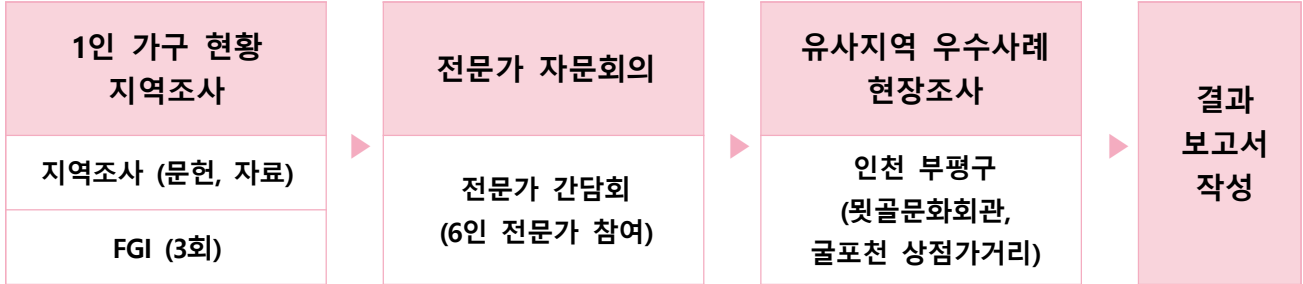
1.1 연구 개요

- 연구단체명 : 궤동 1인 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
- 참여의원 : 전도현 의원(연구책임), 전예슬 의원, 조미선 의원
- 연구수행 :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전철원)
- 연구주제 : 궤동 1인 가구 밀집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 연구목적 :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궤동의 로컬브랜딩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궤동 만들기
- 연구범위

구분	내용
시간적범위	2025.05.23. ~ 10.19.
공간적범위	경기도 오산시 궤동 1인 가구 및 원룸 밀집 지역 
내용적범위	1인 가구 현황 지역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유사지역 우수사례 현장조사 연구보고서 작성

1.2 연구 추진 내용

1) 연구 추진 단계



2) 1인 가구 현황 지역조사

○ 기 간 : 2025.05.23. ~ 10.10.

○ 주요내용

- 기존 연구자료 분석 및 지역 현안 데이터 분석
- 지역 내 유관기관 방문

구분		내용
오산시청	지역경제과	오산지역 내 상권 활성화 사업 현황 질의, 궂동의 지역 현안 확인
	평생교육과	궂동의 지역 교육 관련 현안 확인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궂동의 복지 문제 현안 확인
오산대학교		대학과 지역의 협업 가능성 확인

· FGI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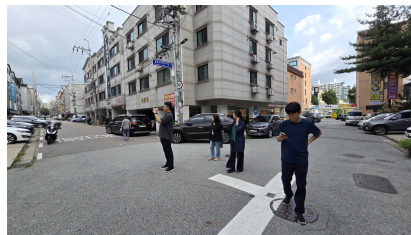
구분	내용
1인 가구 (2025. 06. 30.)	A : 여, 76세,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궂동 22년째 거주 B : 여, 75세, 무직, 하얼빈에서 가족이 함께 이주 C : 남, 56세,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궂동 3년째 거주 D : 남, 39세, 무직, 기초생활수급 신청 중, 우울증 치료 중
지역상인 (2025. 07. 02.)	E : 여, 69세, 부동산 대표, 10년째 운영 F : 여, 40대, 부동산 실장 G : 여, 50세, 반찬가게 대표, 9년째 운영
이주민 (2025. 07. 23.)	H : 여, 41세, 중국 국적, 한국 영주권 I : 여, 39세, 한국·베트남 이중국적 J : 여, 51세, 한국 국적

3) 전문가 자문회의

- 일 시 : 2025.08.20.
- 장 소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분소 칠복센터
- 참 석 자 : 전도현 의원, 전예슬 의원
- 주요내용
 - 궐동지역 현장 탐방
 -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공유 궐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 전 문 가

도시재생, 주거환경 : 정혜영	공원 및 녹지 조경 : 김영일
현 지역입지분석연구소 대표 전 비룡공감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장 금곡동 도시재생, 남방동 새뜰마을 MP 충남연구원 연구원	현 플라워앤가든인피플 대표이사 전 강동공동체 정원 운영 (주민주도 공원공간 관리) 강동정원문화포럼 대표 경기도교육청 한국그린스마트미래학교 TF위원
사회복지, 로컬브랜딩 : 하경환	사회적경제, 공공 : 김흥길
현 안양시 만안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부장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 단장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단장	현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 전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과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국회협력관 서울특별시 공유도시팀 팀장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1인 가구 지원 : 송주현	복지 및 지역 협력 : 장옥희
현 청년단체 소소대표 (1인 가구 청년 지원) 문화기획사 돌맹이컬쳐랩 대표 전 국민통합위원회 청년마당 2, 3기 참여 경기도 청년 참여기구 2, 3기 참여	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대리

사진



4) 유사지역 우수사례 현장조사

- 일 시 : 2025.09.18.
- 장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뫼골문화회관, 굴포천상점가 거리)
- 참석자 : 전도현 의원, 전예슬 의원
- 주요내용

구분	뫼골문화회관	굴포천상점가
주제	주민참여, 공원 활용	지역 상권 활성화
안내	〈여럿이함께하는동네야놀자〉 이충현 대표	〈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
성과	저층 주거지였던 부평 청천동 일대에서 활동한 마을조직으로, 공원의 SOC 뫼골 문화회관을 위탁 운영 중. 인근 재개발 이후 아파트 거주자들과의 협업을 모색 중	과거 주거지였던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모한 사례를 통해 상권 활성화 사례 청취
사진	  	  

CHAPTER 2

주요 사업 내용

2.1 1인 가구 현황 지역조사

1) 지역조사

○ 지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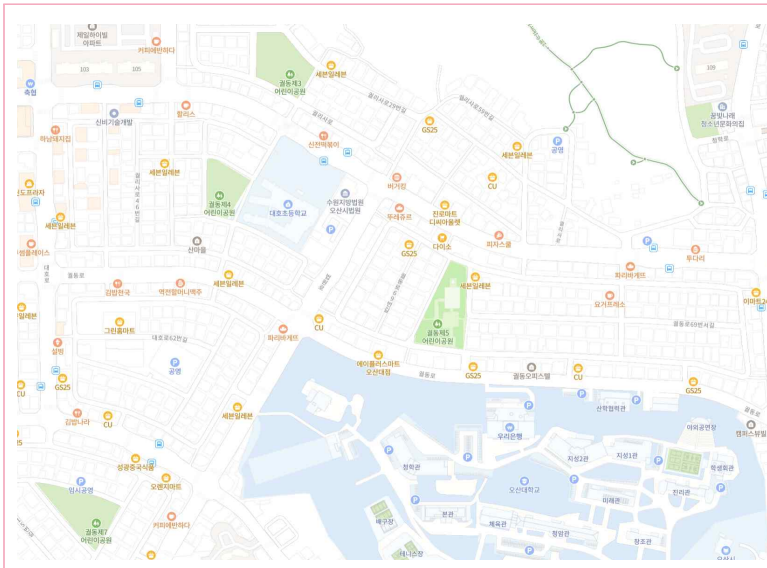
	<p>궐동 서측 오산세교2지구 신규 주택개발지구</p> <p>궐동 동측 도시재생사업 수행 중</p> <p>중심부 저층주거지 상업지구</p>
구분	내용
권역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궐동의 서측은 오산세교2지구의 신규 주택개발지구 (신도시권역) 궐동의 동측은 舊궐동으로 불리며 1호선 지하철의 통과로 궐동과 단절 (현재 도시재생사업 시행 중) 궐동의 중심부는 일부 상업지역 및 원룸 밀집 지역 위치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궐리사가 위치 궐동으로 명명
주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원룸 및 빌라가 밀집된 주거환경 악화가 시작 2004년 완공 이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으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사업 과정 주차장 부지 매각 등으로 전체 지구에 주차공간이 부족 인근 공장의 이전 및 기숙사 건립, 인근의 신도시 건립 등으로 인구공동화 발생 이를 저소득층, 외국인 등이 입주하며 주거 및 생활환경의 악화 가속 공장의 이주로 상권의 침체 동반
1인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기준 고독사 발생 건수가 오산시 전체 23건 중 11건이 궐동에서 발생 (47.8%) 2022년부터 오산시,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등이 FGI 연구, 지역 주민 및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독사 예방 활동 진행 중 2023년 고독사 예방 '위드스마일'사업으로 지자체 고독사 예방사업 우수사례 선정

○ 현장조사

· 주거환경 및 지역조사

구분	사진	
야간 경관		
외국 식품점		
분리 수거 현황		
주거 단지		
원룸 내부		

· 지역 내 공개공지 및 유희공간 조사



- 궂동 지역은 주거, 상업단지로 공개공지는 지역 내 공원 5개소가 유일
- 주거지와 떨어진 제1어린이공원을 제외하면 야간에 공원을 산책 용도로 이용하는 주민이 다수
- 공원이 어둡다는 민원이 다수 있으나 인근 주거지의 빛 공해 문제로 무작정 확충할 수는 없어 바닥등, 알락구 등의 간접등으로 외진 분위기를 개선하는 방향이 필요

<p>제1 어린이공원 (청소년문화의집)</p>			
<p>제3 어린이공원 (대호초)</p>			
<p>제4 어린이공원 (대호초)</p>			
<p>제5 어린이공원 (오산대)</p>			
<p>제7 어린이공원</p>			

○ 기존 연구자료 조사

- 기존의 연구자료는 2022년~2024년까지 FGI를 통해 지역에 거주 중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의 생활을 집중하여 연구
- 연구자료 요약

인근 공업단지의 이전 등으로 궐동의 노동자 중심의 주거 수요가 줄어들면서 주거취약계층, 외국인 근로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되며 지역의 슬럼화가 시작

오산의 낮은 임대료, 물가, 편의시설 등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긍정적 요인

궐동 지역의 문제로 지속 지적되는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주차의 문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외국인 거주자의 증가는 궐동을 우범지역이라는 인식을 생성

1인 가구와 단기거주자가 집중된 궐동의 주거환경의 특성상 지역 내의 자치활동이 침체

1인 가구는 보통 가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되는 경향이 짙으며 실직 등의 경제적 요인이 중첩되며 심신의 문제가 발생, 고립으로 인해 악순환 발생

1인 가구 역시 소통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있으나 경제적, 심리적 문제로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복지 기관 등의 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참고 연구자료 목록

연번	자료명
1	마을 4.0 아젠다 제안사업- 인구·가족 구조 변화와 복지 / 2024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	오산 궐동 1인 가구 FGI 결과보고서 / 2022 / 김수경 한신대학교 교수, 오산종합사회복지관
3	궐동1인 가구주민참여워크숍2회차결과보고 / 2022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4	궐동1인 가구주민참여워크숍1회차결과보고 / 2022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1	내용
연구명	마을 4.0 아젠다 제안사업- 인구가족 구조 변화와 복지 / 2024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궐동&경기도 이슈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평균(31.2%)을 웃도는 남촌동의 1인 가구 비율(36.1) 30~50대 청·중장년 1인 세대, 특히 30대 남성 1인 세대 多 · 2007년 LG 평택공장 기숙사 건립, 2015년 대규모 공장 이전으로 인구공동화현상 발생 · 2020년대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 첨단 산업 유치 · 궐동에 4~6층 규모의 다가구, 원룸텔 등의 저층 주거 형태 밀집 · 주상복합 건물에 원룸 개발 가속
이슈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경제 성장둔화 및 부양 부담 증가 · 청년 고용률 ↓,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고독사 문제
궐동지역 이슈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황 및 1인 가구 욕구 파악을 위한 활동 시도(오산종합사회복지관) · '22년~'24년까지 지속적인 1인 가구 대상 욕구 파악 FGI 추진 · 지역 현황 및 1인 가구 주요 욕구 : 생활 여건 개선, 마음건강, 공동체 모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고립 1인 가구 생활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24년 오산시 3개 종합사회복지관 컨소시엄 사업 '이웃의재발견' 추진 · '21~'23년, 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고립가구의 이웃관계망 회복을 통한 민관협력 고립탈출 프로젝트 '위드스마일'] 추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1인 가구 마음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궐동 청·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마음카페 추진 · '23~'24년 정신재활시설 늘푸름과의 컨소시엄 사업 [토닥토닥카페] 추진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공동체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24년 명절 당일 1인 가구 당사자와 함께하는 합동 차례 · '22~'24년 중장년 1인 가구 대화모임 '희망을 전하는 우리' 진행 · '22년 오색빛복지등대 사이닝 클래스-1인 가구 당사자 문화활동 지원
2024 현장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증대, 고립, 외국인 근로자 증가 · 지역 환경 조성, 안심 공공시설 확충 필요 · 공유공간 조성, 공동체 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주거·상권·경제모델 구축지원)
마을 중심 대응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이웃 관계망 형성 : 소모임 활성화 · 우리동네 흥반장 : 마을 인적 자원 연계 통반장 연계 · 온라인플랫폼 : 당근, 네이버 등과 연계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 공유공간 : 마을자산화 주거연계 등으로 공간 조성 및 운영 · 지역관리기업 : 민관협력모델 수익모델 구축으로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고려 · '동네복지관계망 혁신 모듈 개발 사회적약자 등의 통합서비스 운영 및 일자리 창출

2	내용
연구명	오산 궤동 1인 가구 FGI 결과보고서 / 2022 / 김수경 한신대학교 교수,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궤동의 주거 및 생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 원룸 밀집 지역 ·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로 거리 미관 문제 심각 · 외국인 밀집 지역이 존재, 원주민 간의 갈등 발생
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범지대, 외국인 밀집으로 우범지대의 이미지 증가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생활의 위협을 느낌
정신건강 및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우울감, 고립감을 호소 ·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다수,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소속감에 대한 욕구 ·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
신체적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 뇌경색, 디스크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자 다수 · 복지관, 행정센터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싶다는 욕구를 확인 ·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 존재
사회적 관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에 대한 욕구를 확인 이웃 간의 대화와 공유의 공간, 문화가 필요 · 복지사가 1인 가구를 연계해 주거나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경제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를 원하나 수입 발생 시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기는 딜레마 발생 · 공공근로를 하곤 했지만 지속하기 쉽지 않음
문화 및 여가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텃밭, 재능기부 등의 욕구를 확인 ·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문화생활의 어려움 · 공적인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확인 (세대별 특화 프로그램)

3	내용
연구명	궐동1인 가구주민참여워크숍2회차결과보고 / 2022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개요	2022. 06. 17. / 3그룹 인터뷰
마을의제1 이웃관계단절, 대화할 사람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옆집에 사는 사람을 모름 · 직장인, 젊은 층이 많아 바쁘고 사교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 · 교포가 많아 교류의 어려움 · 단체활동이 없어 만날 기회가 없음
마을의제2 동네 모임, 교류의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있는 사람들만 모임 · 통반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반사회모임도 없음 · 주민들이 인사를 하지 않음 ·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음 · 모임 장소나 모임의 주최자가 없음 · 모임에 참여하기엔 경제적으로 열악
마을의제3 심리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서 집에만 머물 · 일자리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음 · 가족 간 불화 · 내성적인 성격 · 건강상의 문제 · 일하지 못해서 오는 우울감
마을의제4 비싼 월세, 경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에겐 궐동이 맞음 · 수입은 정체되어 있으나 월세, 물가가 인상 ·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어 경제적 부담
마을의제5 쓰레기 투기, 분리배출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수거대가 있어도 잘되지 않음 · 거주기간이 짧아 주민의식 부재 · '누군가 하겠지'하는 책임회피 · 이주민의 정보 부족 · 종량제봉투값의 부담 (CCTV도 소용 없음)
마을의제6 안전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은 스트레스가 많고 솔로 그 스트레스를 풀어 폭력적
마을의제7 이주민 문화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교류가 없음
마을의제8. 오산천,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에 시설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도 개선되지 않음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자조모임 · 문화활동, 동아리 등의 활동을 먼저 해보기 · 요청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 · 동네사랑방 만들기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공동체 만들기 · 안전을 위한 지역문화 만들기 · 기존 안전 체계를 적극 활용 · 가로등 설치 · 연못에 비단잉어 키우기 · 마을의 환경개선 등을 이야기할 창구 필요 · 쓰레기 배출 교육, 홍보 · 요리할 수 있는 공간 필요

4	내용	
연구명	궐동1인 가구주민참여워크숍1회차결과보고 / 2022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개요	2022. 06. 10, 17. / 3그룹 인터뷰	
동네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의 관심과 지원 · 병원, 법원, 등기소,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가까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건물이 없고 한적한 분위기 · 오산천, 산책로, 등산로, 공원 등이 잘 조성됨 · 교통이 편리 · 활성화된 재래시장
동네의 아쉬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되는 월세 · 동네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음 · 오산천, 공원의 의자 및 가로등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불법투기, 분리수거 미비 · 무분별한 배달 쓰레기
궐동에 사는 이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동이 불편한 노인, 파지 좁은 어르신 ·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는 이웃 · 소매치기 등의 범죄, 배화하는 이웃 · 우범지대를 지나야 하는 여성,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노동자 · 노점상 상인 · 아이를 키우는 엄마
나와 이웃이 겪는 삶의 문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정보를 모르는 이웃 · 월세,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 · 동네에 빈번한 싸움, 위협을 느낌 · 혼자 살며, 문화가 달라 먹거리의 문제 ·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이웃, 상대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됨 · 가족과 떨어져 사는 고립감 ·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 문제 · 상인들의 수익 저하 · 코로나로 인한 현장 노동자 경제적 문제

○ 지역 주거환경 조사

오산은 인접한 지역에 비해 저가의 단기임대 매물이 9.5배 이상 많으며 대부분이 궐동에 위치

오산의 단기임대 매물의 면적은 전국 평균의 절반, 임대료는 서울의 절반 이하로 열악함


궐동에 밀집한 저렴하고 열악한 주택은 인근 지역 주거 취약층이 결집하게 하는 요인

- 오산과 인접한 도시의 저렴한 단기 임대 부동산 매물을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조사 (검색조건 : 단기임대, 보증금 1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 2025.08.19. 부동산 플랫폼 다방 기준)

순위	지역명	
1	오산시 (353개)	궐 동 (331개), 기 타 (22개)
2	평택시 (44개)	
3	안산시 (42개)	상록구 (12개), 단원구 (30개)
4	화성시 (36개)	
5	수원시 (26개)	권선구 (17개), 팔달구 (1개), 영통구 (8개)

오산시 인접 4개 지역의 저렴한 단기 임대 매물의 평균은 37개로 조사,
오산시의 저렴한 단기임대 매물은 353개로 **인근 4개 지역 평균의 9.5배**

· 궐동 지역 중에서도 원룸이 밀집한 오산대학교 후문 85,000m² 일대의 부동산 매물 분석



궐동 원룸 밀집 지역 (오산대학교 후문 일대)
104개 부동산 매물 (다방 2025.08.19. 기준)

- 104개의 매물 중 단기임대 매물은 74개로 전체 표본의 76.9%로 조사
- 104개의 매물 중 원룸의 비율은 93개로 전체 표본의 89.4%로 조사

구분	전체 매물 104개 평균	단기 원룸 74개 평균	비고
평균 보증금	133.0만원	57.0만원	서울 지역 73.0만원 대비 42.5% 수준 (다방 월세 통계 2024년 9월 33m ² 연립 기준)
평균 월 세	25.0만원	21.5만원	
평균 관리비	9.0만원	9.5만원	
평균 월지출	34.0만원	31.0만원	전국 1인 가구 주거 평균 대비 55% 수준 (2024 주거실태 조사 1인 가구 주거면적 평균 45.9m ²)
평균 면 적	27.3m ²	25.5m ²	

원룸 밀집 지역의 월세 분석 결과 **월 지출은 서울의 42.5%**. 면적은 **전국 평균의 55% 수준**
 단기 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42%**, **월 지출과 면적 역시 10%가량 더 열악한 상황**

· 궐동 지역에 위치한 원룸은 보통 1개 층에 5~6세대, 전체적으로 5개 층 공간에 30개 정도의 호실이 있는 협소한 형태로 반지하 거주 형태도 남아 있으며 보통 200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조성, 지역의 부동산에 조사 결과 외국인 거주자 비율을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임대를 한국인이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



매물번호 51001544

월세 60/20

//착한월세//최대매물보유//S원투룸// 서울+골드부동산




🏠 원룸(분리형) 📏 26.44m²
 🏢 반지층/4층 💰 9만9000원

난방종류	개별난방
총 세대수	28세대 층당 5세대 이상
총 주차대수	총 4대
현관유형	복도식
입주가능일	2024.10.03 (협의 가능)
건축물용도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2003.12.05
최초등록일	2025.06.04

2) FGI

○ FGI 진행

- 1인 가구, 지역 상인, 이주민 총 10인을 대상으로 FGI 3회를 진행

구분	내용
<p>1인 가구 (2025.06.30.)</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grow: 1;"> <p>A : 여, 76세,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궤동 22년째 거주 B : 여, 75세, 무직, 하얼빈에서 가족이 함께 이주 C : 남, 56세,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궤동 3년째 거주 D : 남, 39세, 무직, 기초생활수급 신청 중, 우울증 치료 중</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유가 다양하나 낮은 임대료와 보증금, 단기계약 조건 때문에 궤동에 거주 · 이웃이 자주 바뀌어 전에 알던 친구 관계, 기관 및 종교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 · 연령이 젊을수록 식사를 스스로 준비하기보다 간편식에 의지 · 외국인이 많은 것은 공감, 중국계 외국인이 가장 많다고 체감 · 생활과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종교, 복지관 등을 이용. 이마저 이용 불가 시 고립의 상황이 악화 · 지역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거리의 소음, 방음이 안 되는 주거시설, 불법 주차를 문제점으로 꼽음 ·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을 필요로 함
<p>지역상인 (2025.07.02.)</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grow: 1;"> <p>E : 여, 69세, 부동산 대표, 10년째 운영 F : 여, 40대, 부동산 실장 G : 여, 50세, 반찬가게 대표, 9년째 운영</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동 지역 부동산의 특징은 많은 호실과 단기, 무보증 (월세가 한두 달 밀리면 퇴실 조치) · 인력 회사와 연계된 단기근로자, 저렴한 방을 찾는 세입자가 주로 거주 · 상권의 특징으로는 오산지역에 먹자골목이 발달하지 않아 지역 상권 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시의 지원이 필요, 현재는 경기침체로 1~2년 내에 폐점하고 공실도 많은 상황 우선 해결 과제로는 주차 문제, 지역에 대한 인식 문제, 야간 경관 및 축제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 · 상인회 결성에 대해서는 인터뷰 참여자들은 호의적이며 결성 과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 · 지역 내 공공시설 및 관광자원이 없는 것을 생활상의 아쉬움으로 지적
<p>이주민 (2025.07.23.)</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grow: 1;"> <p>H : 여, 41세, 중국 국적, 한국 영주권 I : 여, 39세, 한국-베트남 이중국적 J : 여, 51세, 한국 국적</p>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동에 중국계 이주민들이 많아서 커뮤니티를 형성, 다만 조직화나 문화축제 등은 프로그램은 부재 · 중국계, 러시아계, 베트남계가 다수 있는 것으로 추측 · 궤동의 학교들은 이주 배경의 아이들이 다수여서 이에 대해 많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 다만 학교 외 이외에 다른 시설들은 아직은 이주 배경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낮아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 다수 (오산시 가족센터, 광성교회 등이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 주차 문제, 주거환경의 문제 등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 · 언어의 문제와 문화활동, 아이 돌봄 등의 프로그램 부재를 아쉬움으로 응답 * 전체적인 조사 대상은 귀화 혹은 귀화에 준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소통의 문제와 섭외의 문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함

○ FGI 요약

1인 가구 FGI				
구분	응답자			
	A : 여, 76세, 무직, 수급자, 궤동 22년 거주	B : 여, 75세, 무직, 하얼빈 출신, 가족과 이주	C : 남, 56세, 무직, 수급자, 궤동 3년째 거주	D : 남, 39세, 무직, 수급 신청 중, 현재 우울증 치료 중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 삼성 공장에서 27년간 근무 · 남편과 사별 후 자녀들과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한국에 와있던 친척의 초청으로 한국으로 이주, 조경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 궤동으로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정보통신 공사 업종에 종사. 사업 실패 후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거주 군 제대 후 동생의 추천으로 오산으로 이주
1인 가구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하여 계단을 오르기 힘들. 자녀 세대와 분가, 독립생활 시작 · 혼자 사는 게 심적으로 편하여 1인 가구로 지내는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에서 오산으로 이주 (정확한 사유는 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공사를 하다 사업이 어려워지며 이혼 · 거처를 정하다 과거 살던 동네와 가깝고 월세가 싸 궤동으로 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일 공장일 등을 하며 지내다가 몸이 아파 정착을 마음먹음, 사회초년생 때 처음으로 왔던 오산으로 돌아옴
1인 가구의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직장 생활할 때 가입한 연금과 노령연금으로 생활 · 가족들이 있고 왕래하지만 생활하는 것이 편함 · 식사를 해먹지만 혼자서는 여러 끼를 같은 음식을 먹게 되어 복지관 등에서 식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와 복지관 수원지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다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비용으로 생활 · 오산세교2단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중 · 전통시장을 이용해 식사를 차려 먹는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용 중인 신경정신과 약 때문에 노동이 어려워 현재 수급 신청 대기 중 · 현재 궤동의 원룸에서 생활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 · 인스턴트나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편
심리적인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외출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 · 오래 교류한 친구들은 있으나 지금 사는 빌라는 사람들이 워낙 자주 바뀌어 정을 붙이고 친해지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A와 자주 다니니 크게 어렵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이 아플 때 의지할 곳이 없음 다만 근처에 칠복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음 · 수원에 교회를 다니며 마음에 위안을 받음 · 공원이나 하천부지에 가끔 산책 나감, 복지관 행사에도 종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혼자 핸드폰만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서 우울감이 높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함

1인 가구 FGI

응답자

구분	A : 여, 76세, 무직, 수급자, 궐동 22년 거주	B : 여, 75세, 무직, 하얼빈 출신, 가족과 이주	C : 남, 56세, 무직, 수급자, 궐동 3년째 거주	D : 남, 39세, 무직, 수급 신청 중, 현재 우울증 치료 중
외국인에 대한 이미지	· 사귀고 나서 판단해야 하는데 의심 먼저 하니 이미지가 안 좋음		· 미디어에서 외국인 범죄가 많이 언급되니 편견이 많은 것 같음.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중국인을 마주치면 피하게 됨	· 유희가여서 더 문제인 것으로 생각함 다만 인식이 점점 위험한 동네라고 고정되는 것 같음
동네의 치안			· 전에 궐동에 옆집에 살던 사람이 죽었는데 자살이라 생각	
필요한 지원	· 오산의 복지센터 프로그램이 개선되었으면 함 수원 지역의 프로그램 질이 더 높다고 생각	· 불법 주차, 공유자전거, 킥보드 등이 어지럽게 주차되어 보행에 큰 불편 초래	· 지역 봉사를 할 수 있는 공공근로가 늘어나 정기적인 일자를 갖기 어려운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필요
기타 사항	· 목욕탕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음	· 지역 주민들이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	· 타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다 생각, 근처에 저렴한 마트가 있었으면 좋겠음 · 주차난이 해소되었으면 함	· 거주하는 주거 지역에 방음이 안 되는 문제 · 거리에 소음

상인 FGI			
구분	응답자		
	E : 여, 69세, 부동산 대표, 10년째 운영	F : 여, 40대, 부동산 실장	G : 여, 50세, 반찬가게 대표, 9년째 운영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째 공인중개업 종사, 궤동지역에서 10년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의 부동산에서 실장으로 함께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어린이집 운영, 현재 반찬가게 운영 중 · 복지관과 함께 어르신 반찬 나눔 진행
체감하는 지역의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지역의 공사 현장 등 일자리 문제에 따라 지역 부동산의 수요와 임대료가 차이 남 (10만원 까지도 등락) · 무보증, 단기 임대, 한 건물 25가구 정도가 보통 · 인력 회사에서 대규모로 임대, 인부 숙소로 사용 · 집주인들은 대부분 타지에서 거주, 부동산이 관리를 대행 (관리 중 고독사 사건을 종종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 이전 이후에는 지역이 급격히 침체 · 보육 및 교육 시설에도 한국인 아이들 보다 외국인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 · 어르신들이 자주 반찬가게를 오시는데 몸이 안 좋아하시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
외국인 치안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감상 궤동 거주 인구 절반이 외국인 중국계,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다수 · 부동산 대출이 한국인보다 중국인에게 잘 나오는 사례도 있어 주택 소유주가 중국인인 경우도 있는 상황 ·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중국인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외지 한국인보다 더 채용하고자 하는 공장도 있어 중국인의 취업이 더 쉬운 공장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범죄 등이 많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지만 유흥가라서 일어나는 문제였고 지금은 개선되었다고 생각. 다만 그때의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찬가게 이용자 중에서도 외국인이 많음 · 중국계 중에서도 중국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 때문에 일부러 귀화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음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리사 공간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공공시설이 너무 부족한 상황 청소년 꿈빛나라 센터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엔 제한적이고 복지관 분소도 세교2단지에 생겨서 아쉬움

상인 FGI

구분	응답자		
	E : 여, 69세, 부동산 대표, 10년째 운영	F : 여, 40대, 부동산 실장	G : 여, 50세, 반찬가게 대표, 9년째 운영
괘동 지역 및 상권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대가 근처에 있지만 대학생이 자취하는 경우가 많이 없음 · 오산대 학생들에게 무서운 동네로 인식 · 오산에서 젊은 층이 놀거리가 없는 것이 문제 · 괘동 내 상인들 중에 중국인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가 안 좋아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 1~2년 사이 폐업이 꽤 많은 상황 · 과거에는 먹자골목 축제를 시에서 진행했었는데 요즘은 진행하지 않아 아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지만 상권과 너무 멀어서 불법주정차가 만연 · 큰 도로에서의 단속이 오히려 괘동의 골목 내 불법주정차를 유도하는 문제 · 음식물 쓰레기 분리 같은 경우도 시스템이 비비
해결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괘동 지역은 향아리 상권이라 조금만 노력하면 활성화가 될 거라 생각 · 께리사를 개방하여 관광지화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갈 것이라 생각 · 먹거리 축제가 지역 활성화에 핵심 ·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단속 유예 시간이 필요 · 야간에 너무 어두워 네온사인이나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하고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하면 좋겠음 (유동 인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경관 조명, 캐릭터 등으로 경관 특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 자체가 먹자골목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라 신시가지 쪽에도 먹자골목이 없음 오히려 괘동 지역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더 몰려올 것으로 생각 · 복지관과 연합해 다양한 반찬 배달, 김밥 봉사 등을 하고 있음. 무료 급식소 등의 고민을 늘 하지만 공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고민 지원이 일부 있다면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 · 예전에 빛 축제 및 공연했던 것이 좋았음. 지속적인 행사가 있으면 좋겠음
상인회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회에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나 다만 중국 상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상인회 구성 시 기준이 필요함 (중국 상인들이 상인회를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 · 상인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다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면 주변에 알려서 이야기해 볼 용의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어야 서로 교류하며 상인회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 · 상인회를 조직하는 과정 자체를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상인회 조직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 장사하신 분들의 의견은 상인회의 이점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주변에서 욕만 먹는 일이라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

이주민 FGI

구분	응답자		
	H : 여, 41세, 중국 국적, 한국 영주권	I : 여, 39세, 한국-베트남 이중국적	J : 여, 51세, 한국 국적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흑룡강 출신, 2021년 한국 이주 궈동에서 네일숍 운영 남편(조선족) 딸과 궈동 빌라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민, 2006년 한국 이주 제조업체 근무 및 베트남어 통역 프리랜서 남편(한국) 3자녀와 궈동 아파트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길림성 출신, 한족, 2005년 한국 이주 궈동에서 중국 식료품점 +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 남편(한국) 2자녀와 궈동 아파트 거주
궈동에 오게 된 이유 및 현재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저우에서 일본계 부품회사에서 근무 일본어, 중국어 통역 업무 한국에 2021년 입국 현재 4년째 한국에서 생활하던 동생의 권유로 입국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여 창업 자녀가 학령기라 자녀의 장성 때까지는 한국 거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터지역 태생 호찌민에서 백화점 영업직으로 근무 한국에 2006년에 결혼 이주로 입국 안산에서 거주하다 오산에서 일하는 남편의 출퇴근 문제로 2015년 오산으로 이사 오산 이주 후 본인도 취업하여 반도체 생산직을 거쳐 창고 관리자 겸 베트남 근로자 관리로 근무 중 오산시 가족센터와 연결해 프리랜서 통번역가로 활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길림성 태생, 의류회사 근무 2005년 한국 입국 교회에서 만난 한국인과 결혼 처음 오산에 거주하기 시작하며 계속 오산 거주 오산지역에 중국계 이주민이 많아 차이나타운이라고 생각하고 거주를 선택 매장은 거의 중국 사람
외국인들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산대에 중국인 유학생은 적은 편 가게에 오시는 분들만 말하면 중국인이 다수, 베트남, 터키, 몽골, 우즈베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궈동에는 캄보디아, 태국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느낌 들은 이야기로는 건설 분야에 베트남 분들이 많이 일하는 걸로 들었음 건설업 종사자 보니 1년짜리 장기보다는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느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게를 내고 나서 러시아, 베트남 분들이 많아진 느낌 아직까지는 중국인들이 많고 러시아(구 소련연방 지역 포함), 베트남 유학생들이 많은 느낌
상인회 및 세계 다문화 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궈동에 상인회가 생기면 적극 참여할 생각 세계 다문화 축제도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할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다문화 축제도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할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궈동에 상인회가 생기면 적극 참여할 생각 세계 다문화 축제도 열리면 좋겠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분야를 함께할 생각

이주민 FGI			
구분	응답자		
	H : 여, 41세, 중국 국적, 한국 영주권	I : 여, 39세, 한국·베트남 이중국적	J : 여, 51세, 한국 국적
쫄롱의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집, 가게가 5분 거리에 있어서 편함 ·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보니 학교도 선생님들도 다양성을 이해해주어 만족 · 주차가 너무 불편함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의식 문제 · 낮은 월세, 무보증이라 출소지들도 거주하는 거라 생각됨 · 지금 사는 빌라가 습하고 별이 잘 들어오지 않음 · 현재 사는 빌라에 정신장애가 있는 분이 계셔 모든 빌라 사람들이 긴장 중 · 어르신들은 텃세(장유유서 문화)가 좀 있어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식품점이 많아 쫄롱에 자주 오는편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고 아이들에게 베트남 음식이나 문화를 알려주려 마실 나오는 겸 자주 방문 · 인근에 성범죄자 알림이 떠서 아이가 어려서 다소 걱정 (저녁에는 거의 방문하지 않음) · 한국어 발음이 유창하지 않아서 자녀의 수업이나 학부모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조금은 걸도는 느낌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쫄롱에서 가게를 하니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 동네는 무서운 동네라는 이야기를 들음 · 가게 주변이 화식을 하는 유흥가가 있어 싸움이나 소란이 있는 편 늦게까지 영업하니 취객들도 종종 방문 · 일찍 이주한 편이라 아이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과 소통이 안 되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문화 학생들도 많아져 많이 개선됨
오산 쫄롱의 개선 필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정 등의 다양한 시설이 있지만 외국인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없는 것이 아쉬움 · 취업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을 위한 단기 쉼터 등이 오산에는 있는데 오산은 없어 실직이나 이사 등으로 거주지가 없어지면 모델을 가야 해서 임시 쉼터가 있으면 좋겠음 · 광성교회에서 오산시 지원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큰 혜택이라 생각함 이런 프로그램이 늘어났으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에 살았을 때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많았음. 오산은 가족센터뿐인데 오산은 다문화센터, 외국인센터가 따로 있어서 다양한 지원이 있었음 · 한국어 수업이 많이 개설되면 좋겠음, 다양한 언어, 시간대 등이 배정되면 많은 외국인이 도움받을 것이라 생각 · 도서관에 외국어 도서가 많았으면 좋겠음 ·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비용, 교육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 어린 자녀가 가족센터에 혼자 가기에는 너무 멀어 아이들을 위한 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 인천 등에는 차이나타운이 있고 행사도 많아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있는데 오산은 없음 · 광장무 같은 활동도 오산은 없는 편 · 새로 오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교육이 활성화되면 좋겠음

2.2 전문가 자문회의

1)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 6인의 전문가와 함께 지역 답사 및 간담회 진행
- 간담회 이후 6인의 전문가의 컨설팅 보고서 취합

구분	사진
궤동 지역 탐방 (09:00 ~ 10:00)	
전문가 간담회 (10:00 ~ 12:00)	

○ 전문가 자문회의 정리

구분	내용
도시재생, 주거환경 정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중앙에 위치한 공원이 규모가 크고 지역의 자원이라 판단됨, 공원 공간은 임시적인 실험도 지속적인 활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 · 오산대학교와도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지역과의 연계되는 선형공원이 조성 가능 할 것 · 1인 가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1인 가구 삶에 침투할 수 있는 공유공간 조성이 주요 · 궤리사라는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이 필요 중국인들과의 교류 방안도 필요 · 인구소멸 시대에 대호초등학교에 꽤 많은 재학생이 있어 정주 환경으로는 매력적 ·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해 외국인들과 만날 수 있는 지역프로그램 및 행사가 필요 · 경기도시공사 등에서 일부 건물을 매입하여 1인 가구와 복지과 커뮤니티 제공을 하는 모델을 형성 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생각 ·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복합적으로 사업을 투여하는 것도 좋은 생각 GH가 공간매입, 청년 및 복지 관 등이 함께 인력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해보아도 좋을 듯 · 오산대학교와 로컬라이즈 사업을 함께 해봐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듯

구분	내용
<p>공원 및 녹지 조경 김영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가 중요한 자원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아쉬움, 공원에 갈 이유가 필요 · 공원이 만들어진 지 오래라 하드웨어적인 리뉴얼이 필요함 다만 이 이전에 경관적으로 정비하는 공원이 될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정원 같은 방향을 지향할 지 결정 필요 · 공원의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과 프로그램이 많을 것으로 보임
<p>사회복지, 로컬브랜딩 하경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광성교회 같은 협업 의지가 있는 주체들과 공간 활용 및 세어에 대한 협의가 필요, 개방하고 협의만 된다면 1인 가구의 식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인큐베이팅 방식을 오산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 (서울대 대학동 프로젝트 사례) · 지역의 전통적인 자치 리더들의 참여가 중요,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자치조직의 참여를 독려 · 로컬브랜딩의 핵심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아요'라고 생각 삶을 스스로 개선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 등이 생성
<p>사회적경제, 공공 김홍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요소들이 서로 교류될 수 있는 공용공간의 필요 (무중력시대 사례) · 외국인 문제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 야간 조명에 자국어로 환대하는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공간 자체에 외국인을 환대하는 메시지를 전면 배치
<p>1인 가구 지원 송주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나 프로그램도 좋지만 지역에 구심점이 될 청년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 · 오산에도 청년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런 청년들과 축제 기획,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함께 하는 등의 활동가 그룹 양성이 필요할 것 · 남양주에서 계약직으로 청년을 고용해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한 적이 있음.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체가 되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로 꽤 성과가 좋았음
<p>복지 및 지역 협력 장옥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전문가솔루션 이후 가능한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실천 중 (마켓 안부 노트 등) ·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놀이 프로그램 운영 · 1인 가구 리더십 교육을 통해 1인 가구 당사자들의 역량강화 · 1인 가구 지원에 있어 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필요

2) 전문가 컨설팅 보고서

○ 컨설팅 보고서 요약

	문제의식과 해결방안	협업기관 및 활용 가능 사업
<p>하 경 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인근의 복합적 쇠퇴사례로 지역재생 및 브랜딩이 필요 · 이주민의 증가, 1인 가구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 간의 협업 경험 필요 - 현재 활동 중인 주민 모임을 중심으로 모임 확장 및 체계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느슨한 협력을 하는 경험 필요 - 활동 플랫폼 공간 필요 (기존 공간 활용-광성교회나 권리사, 신규공간 조성) · 단기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가 동일한 사람들 간의 협업 (이주 : 한글교실, 공동육아 / 상인 :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 / 1인 가구 자조 모임) - 지역의 인구, 공실, 상권, 문화, 주민 활동 등을 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간 느슨한 거버넌스 : 주민참여예산 · 중장기과제 : 단기과제를 실천하며 중장기과제 도출 · 사업 제안 :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활용한 궐동 수다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오산시의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한 사업 지원 · 오산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 오산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공모 사업 · 오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오산 가족센터와 협업을 통한 지원 · 오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p>정 혜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주거환경이 1, 2인 가구에 특화. 1, 2인 가구에 맞는 주거 현안 마련 및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우선 주차 등을 통해 주차 문제 해소 - 기존 거주자들을 위한 간편 집수리, 나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주민조직을 통한 모임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제를 종합하고 논의할 활동가 배치 - 빈 상가, 교회 등을 활용한 거점 공간 운영 - 지역자원 연계 방안, 지역 의제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 - 지역문제를 종합하고 논의할 · 상권 활성화에 집중하는 방식보다 관광과 지역브랜딩과 연결하는 복합적인 접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 권리사 등 경제 주체들과 간담회 진행 - 상인 모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매출 증대 프로그램 운영 · 단기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활성화를 우선하여 관광 및 상권 활성화 - 지역의 내부 역량 강화로 지역 활성화 · 중장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권,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활성화 추진 · 사업 제안 : 내부 주민 역량강화 및 주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GH 등의 공공기관 · 복지관, 가족센터, 문화재단 등의 중간지원조직 · 토지 등 소유자와 상생협약 체결 ·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청의 상권 활성화 사업 연계 · 한국공자학회 등의 민간단체

	문제의식과 해결방안	협업기관 및 활용 가능 사업
김 홍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교류의 단절로 관계망의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 주거공간, 공실, 다문화 등으로 지역구성원 간 소통 단절 - 소통 단절로 인한 상권 침체 - 치안 불안으로 인한 안전이나 소속감 결여 -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집을 넘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와 우연에 의해 교차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프로그램 공간 : 다함께돌봄, 무더위쉼터, 무인카페, 작은도서관 등 프로그램 : 방과후 돌봄, 생활체육, 플리마켓 · 환대의 공간으로서의 지역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구성원, 외국인에게도 정보제공 및 소통 가능한 디자인 - 범죄예방 디자인 등이 반영된 고보 조명 등 · 단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용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운영자 선정 - 초기 장비 및 예산 확보, 후원 및 네트워크 구축 - 홍보 및 활성화, 이용자 관리 및 운영 방침 정립, 모니터링 · 중장기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후원, 운영 체계 구축 -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운영 거버넌스 강화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대상자 발굴 - 환경 및 지역사회 기여 확대, 사업 확장 및 정책화 · 제안 사업 : 함께 채우는 공유냉장고 사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냉장고 · 무더위, 추위 쉼터 기능의 무인카페 · 방과후 돌봄지원 사업 · 안심 귀갓길 조명 설치
송 주 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콘텐츠 마련으로 지역 분위기 환기 - 마을활동가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 활동 인력 투입 - 복합공간 및 공유공간의 필요 (슬세권) - 환대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브랜딩 필요 · 단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문화콘텐츠 마련을 위한 협업의 장 (마을 주민조직) - 권동 내 활동가 양성, 선순환 구조 구축 · 중장기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문화공간, 공유공간 마련 - 환대를 키워드로 한 마을 브랜딩 · 제안 사업 : 권동 내 마을활동가/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 모든공간31 · 지역청년단체, 청년기업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등 · 사회연대은행

<p>장 옥 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의 고립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고립 및 이로 인한 식생활 불안정 → 건강 악화 - 소통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의 부족, 지역활동가의 부족 - 주민들이 편히 방문할 수 있는 지역 내 거점 공간 마련 - 1인 가구 당사자의 리더십 강화, 조례제정 등 제도화 · 다문화로 인한 외국인 주민과 한국인 주민 간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상반된 인식으로 인한 갈등 -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공존기반 조성 · 단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및 협약체결, 기존 공원 활용 - 식생활 위기 1인 가구 지원체계 마련 - 청년, 주민활동가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 다문화, 외국인 주민 소통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중장기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 제도화 및 조례 제정 - 공공임대주택 활용 모델 구축 · 제안 사업 : 1인 가구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H 매입임대주택 사업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업 연계 · 서울 '마음편의점' 벤치마킹 · 주민자치회와의 협업 ·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간과 관련된 조례 제정
<p>김 영 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성이 낮은 녹지공간을 활동형 공원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궐동의 녹지공간은 활용성이 낮은 상황 - 휴식을 위한 공간 배치보다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 - 텃밭 중심의 활동으로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 · 텃밭을 중심으로 하는 내국인, 이주민 간의 경계 없는 소통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들의 먹거리, 문화나눔이 가능한 문화적 공원으로 조성 - 단순한 경작에 그치지 않고 교육 및 문화 활동으로 확산 · 단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이주민 중 공원에서의 활동을 원하는 주체 발굴 - 공동체 텃밭 활동을 위한 홍보, 초기 텃밭 조성을 위한 지원 · 중장기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에서의 경작 행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행정적 협의 - 궐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공원 이용에 대한 계획, 활용 방안 수립 · 제안 사업 : 궐동 다문화 공동체 텃밭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마을공동체 정원 공모 사업 · 지역 일자리 사업

2.3 유사지역 우수사례 현장조사

1) 유사지역 우수사례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답사 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뚝골문화회관, 굴포천 상점가 답사 진행

구분		활동	비고
1	주민참여, 공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 주거지였던 부평 청천동 일대에서 활동한 마을공동체조직 · SOC 뚝골 문화회관을 위탁 운영 중 · 코로나19 및 인근지역 재개발 이전까지 흑자로 운영 · 인근 재개발 이후 아파트 거주자들과의 협업을 모색 중 	<p>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야 놀자 이충현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공간을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활용, SOC의 주민주도 운영 · 외국인 거주 지역 인근지역 재개발 등 오산과 유사한 지역 환경
2	지역 상권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거지였던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모한 사례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례 청취 	<p>부평구의회 정예지 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거 지역이었던 지역의 민간, 행정의 협업 상권 활성화 사례

사진



3.1 지역 이슈

1) 지역의 이미지 개선

- 우범 지역이라는 낙인
 - 궤동 지역의 1인 가구 고독사,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각종 소란 및 사건 등으로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확산
 - 낮은 정주성으로 인한 시민의식 저하로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만연하여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화
 - 빛 공해에 대한 우려로 지역에 가로등 및 조명 설치가 어려워 어둡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
 - 외국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확대
- 상권의 침체
 - 근로자들의 이동, 코로나19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있지만 지역 상권의 침체와 공실은 지속적으로 증가, 그나마 있는 상가 역시 배달 중심 점포로 전환 중
 - 오산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상권 이용은 적은 편
 - 우범지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일몰 후 방문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음

2) 소통 프로그램 및 소통 공간 조성

- 1인 가구, 이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필요
 - 고립 문제를 겪는 1인 가구 모두 지역사회에서 소통할 기회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게 조사. 다만 고립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기에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통 프로그램의 섬세한 기획이 필요
 - 이주민 그룹의 경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 대부분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접촉면을 늘리는 동시에 대상에 특화된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
- 지역 상인들 간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
 - 지역 상인 그룹 역시 상인회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에 관계가 있는 점포와만 소통하는 상황. 이마저도 폐업으로 인한 공실이 늘고, 외국인 대상 점포가 늘어나며 상인들 간의

소통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 상점가의 공동 의제 설정 및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서라도 기초가 되는 관계망 형성이 주요하며 이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이 필요

○ 소통을 위한 공유공간의 필요

- 쉼터 내 공간 구성은 공원을 제외하면 전부 주거지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 기존 공간의 활용 및 소통 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이 필요

3) 지역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조 구축

○ 지역 역량 강화

- 이주민, 1인 가구, 상인 등의 쉼터 거주 주민들을 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필요
- 다만 각 주체들 간의 역량의 차이가 있으며 소통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활동가와 기획자가 필요. 지역의 청년과 대학생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각 주체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초기에 느슨한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그룹으로의 성장 및 육성 방안이 필요
- 행정, 중간지원조직 등이 쉼터의 주민 주체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의 필요. 현재 각 중간지원조직별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나 중간지원조직 간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으로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방식이 필요

4) 쉼터의 자원과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브랜딩의 필요

○ 쉼터의 역사적 자원 및 중국인 커뮤니티

- 쉼터는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쉼터라는 역사문화자원이 존재
-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중국식품점, 중국음식점이 다수

○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거주지

- 주거 형태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
- 중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적이 다수였으나 최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도 거주

○ 인근지역의 개발

- 오산세교2지구의 개발 및 인근의 개발 이슈가 있어 쉼터의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

으로 개발이 진행 중 아파트 단지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두르고 있는 향아리 상권으로 변모 중

- 다양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범지역이라는 정체성 외에 지역 정체성의 부재
 - 오산대 인근, 지하철 1호선 인접, 인근의 수목원과 오산천이라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범지역이라는 이미지 외에 지역 정체성이 부재
 -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브랜딩이 필요

5)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주거환경

- 인근 산업단지의 배후로 조성된 1인 중심의 거주 환경
 - 오산 및 인근 평택, 수원, 화성 등의 산업단지 지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단지
 - 산업단지의 이전, 산업의 변화 등으로 근로자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자 낮은 임대료, 단기 임대의 특성에 맞게 주거 취약 계층(저소득층, 1인 가구, 외국인 근로자, 노인 인구)의 이주 급속화
- 주거환경 개선의 가능성이 낮은 지역
 - 좁은 면적으로 가족 단위의 주거가 어려워 1인 가구 외의 이주가 어려워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 없이는 1인 가구 중심의 거주 추세는 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공공 소유 토지가 거의 없으며 5층 규모의 주택이 밀집한 구조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도 사업성이 낮은 상황

3.2 지역 브랜딩

1) 브랜딩 콘셉트

'환대(Welcome)의 마을 쉼동'

- 공자가 말한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를 기본으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즐겁고 멀리서 찾아오는 누구든 환대하는 의미를 담음
- 공자의 사당인 쉼리사의 역사성과 다양한 외국인 주민이 살아가는 쉼동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차용
- 정주성만을 추구하지 않고 임시로 머무는 누구든 환영하고 또 누구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화합의 의미를 담음
- 어디로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오산의 특성을 반영, 최근 각광받는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

2) 브랜딩 전략

- 사는 사람들이 즐거운 고클동
 - 고클동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통, 협력 프로그램 운영
 - 고클동의 주체들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 및 공유공간 운영
- 누구나 찾는 고클동
 - 고클동의 녹지공간, 상권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 프로그램 운영
-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고클동
 - 고클동의 다양한 주체들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
 - 고클동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운영

3) 세부 운영 사업

- 지역 이슈에 기반한 지역 활성화 사업 제안

지역이슈		세부사업	연계 가능 사업 및 기관
계획 수립	기초조사 (SW)	지역 현안 기초조사 · 전수조사로 지역 현안 파악 · 조사 자료 정리를 통해 통합 DB	행정안전부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돌봄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인정사업 경기도 ·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계획수립 (SW)	지역 통합 브랜딩 및 지역재생 계획 수립 · 고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 브랜딩 및 지역재생 계획 수립 · 오산시 주도로 계획 수립 및 세부 협업 파트너십 구축 (시청 내 전담 TF 구축) · 도시재생, 로컬브랜딩, 지구 단위 계획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	
지역 브랜딩	지역이미지 개선 (SW+HW)	지역 경관 개선 · 공원을 중심으로 경관 조명 및 조경 시행 · 상가의 외장과 연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 환대, 안전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경기도 · 도민참여형 도시공원 조례 ·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 경관협정
		불법 주정차 해소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 인근지역 주차 공유제, · 상권을 위한 주차공간 조성	거주자 우선 주차제 경기도 ·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 공영주차장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 주차장 설치지원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자원순환박스 조성을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자원순환가게 (광주 리본 사례)

지역이슈		세부사업	연계가능 사업
지역 브랜딩	소통 프로그램 운영 (SW)	이주민 · 한국어교실, 문화프로그램 운영 · 결혼 이주, 이주노동 등의 특화 운영 · 문화다양성 축제 운영	경기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경기사회서비스원 오산가족센터 오산종합사회복지관
		1인 가구 · 식생활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자조 모임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상권 · 상권 특화 축제 운영 (공원 공간과 연계) · 외국인 상권 특화 지역축제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동네상권발전소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소통 공간 조성 (HM)	기존공간활용 ·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 민간 공간 세어 (귤리사, 광성교회 등) · 공원 공간의 광장화 · 준공 예정인 남촌동 복합청사와 연계 신규공간조성 ·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유공간 조성 · 매입 등을 통한 공간 조성 ·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조성	행정안전부 ·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 청년마을 만들기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 인정사업 경기도 ·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거버 넌스 구축	지역역량강화 (SW)	1인 가구 자조모임 · 1인 가구의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모임 · 1인 가구 지원 조직 네트워킹 구축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오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인회 조직 · 상인회 준비모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상인회 조직화 및 기존 지원사업 연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활동가, 기획자양성 · 오산지역 대학생,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활동가 및 기획자 양성 · 기존 지역 봉사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인력 양성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오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거버넌스 구조 (SW)	지역 주체 간 네트워크 · NGO, 상인, 주민(1인 가구, 외국인 가정 등) 주민이 포함되는 궤동 거버넌스 조직 운영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 협업체계 · GH, 가족센터, 복지관, 문화재단 등의 중간지원조직 연계 · 행정기관의 궤동 TF 조직	오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산시청
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 (HM)	GH 협업 1인 가구 특화 매입임대주택 조성 국토부, 경기도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 정비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지역의 순차적인 공간재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GH특화형 임대주택 공모사업

4) 브랜딩 단계별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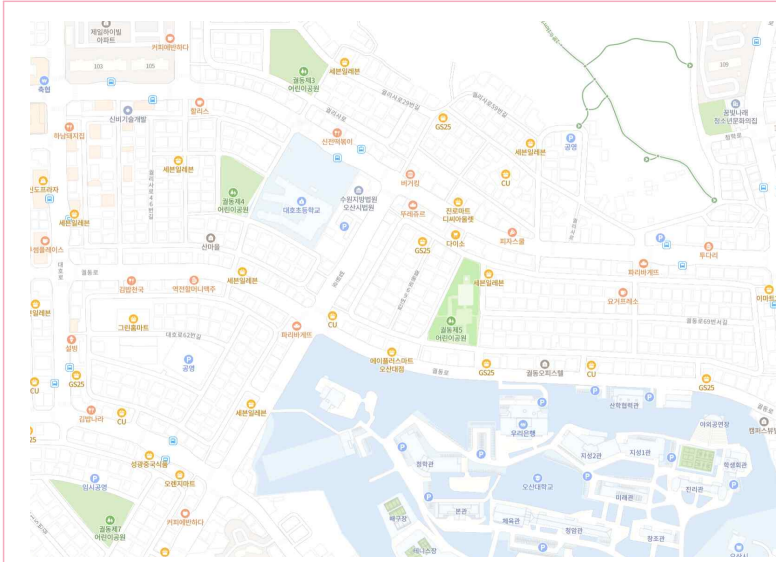
○ 단계별 권동의 브랜딩 발전 방향

지역이슈		세부사업	단기	증장기
계획 수립	기초조사 (SW)	· 지역 현안 기초조사	· 지역 기초조사 · 지역조사단 결성	· 지역 데이터 DB제작 및 지속 업데이트
	계획수립 (SW)	· 지역 통합 브랜딩 및 지역재생 계획 수립	· 통합 브랜딩 및 지역재생 계획 수립 · 오산시 주도 계획 수립 및 협업 파트너십 구축	· 도시재생, 로컬브랜딩, 지구 단위 계획 등 다양한 사업과 연계
지역 브랜딩	지역 이미지 개선 (SW+HW)	· 지역 경관 개선	· 주민참여 지역 디자인 단 조직 (교육) · 공원경관 및 야간 조명 개선 워크숍 · 환대, 안전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 상가의 외장과 연계 견고 싶은 거리 조성 · 지역 경관 협정 체결
		· 불법 주정차 해소	· 인근지역 주차 공유제	·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 · 상권을 위한 주차공간 조성
		·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 외국인 주민을 위한 외국어 안내문 제작 · 자원순환박스 조성을 통한 분리배출 활성화	· 지역단위 자원순환 방식 및 보상체계 구축 · 지역 주민주도 자원순환 활동 지원 (향후 마을기업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SW)	· 이주민	· 한국어교실, 문화프로그램 운영 · 결혼 이주, 이주노동 등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문화다양성 축제 운영	· 가족센터와 연계 각 국가별 지원인력 배치 · 축제 운영위원회 조직
		· 1인 가구	· 광성교회, 복지관 등과 협업 식생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조 모임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식생활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상권	· 상권 특화 축제 운영 (비어가든 형태, 공원 공간과 연계한 방안)	· 외국인 상권 특화 지역축제 운영

지역이슈		세부사업	단기	증장기
	소통 공간 조성 (HW)	· 기존공간 활용	·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 민간 공간 세어 (궐리사, 광성교회 등) · 준공 예정인 남촌동 복합청사와 연계	· 공원 공간의 광장화
		· 신규공간 조성	· 공원 내 커뮤니티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임차 형식을 통해 공공안심상가 시범 운영	·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유공간 조성 · 매입 등을 통한 공간 조성 ·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조성
거버넌스 구축	지역 역량 강화 (SW)	· 1인 가구 자조모임	· 1인 가구의 역량강화 및 커뮤니티 모임	· 1인 가구 지원 조직 네트워킹 구축
		· 상인회 조직	· 상인회 준비모임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상인회 조직화 및 기존 지원사업 연계
		· 지역활동가, 기획자 양성	· 오산지역 대학생,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역활동가 및 기획자 양성	· 기존 지역 봉사단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조 (SW)	· 지역 주체 간 네트워크	· NGO, 상인, 주민(1인 가구, 외국인 가정 등) 주민이 포함되는 궐동 거버넌스 조직 운영	
·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 협업체계		· 행정기관의 궐동 TF 조직	· GH, 가족센터, 복지관, 문화재단 등의 중간지원조직 연계	
환경 개선	주거 환경 개선 (HW)	· GH 협업 1인 가구 특화 매입임대주택 조성 · 국토부, 경기도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 정비 ·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지역의 순차적인 공간 재생		

5) 개별 사업 제안

○ 공원 활용 (경관개선,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1인 가구 소통 프로그램 운영)



제3 어린이공원 (대호초)

제4 어린이공원 (대호초)

제5 어린이공원 (오산대)

제7 어린이공원

사업의 필요성

- 제3, 4, 5, 7 어린이공원은 주거 단지 한가운데에 위치하며 지역의 공유공간의 역할을 수행
-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가며 리모델링의 필요성 증대
- 산책 정도의 이용 외에 공원에서의 활동 및 활용성이 떨어짐
- 야간 경관 조명의 준비를 통해 인근지역의 분위기 개선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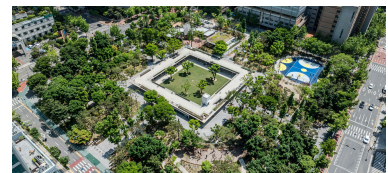
사업 내용

- 공원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주민참여형 경관 디자인 워크숍 운영하여 공원의 조경, 경관 조명 등 디자인 요소를 확정, 공원마다 역할 및 특징을 부여 (제3, 4공원의 경우 학교와 가까운 것을 착안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제5공원의 경우 인근 상권과 연결되는 방식을 제안)



아이들이 디자인에 참여한 세종시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사례

- 숫자로 이루어진 공원에 이름짓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공원에 대한 애정 형성
- 공원에 커뮤니티 정원, 도시 농업 등의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여 참여하는 주민들이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광장의 기능을 통해 공원 안에서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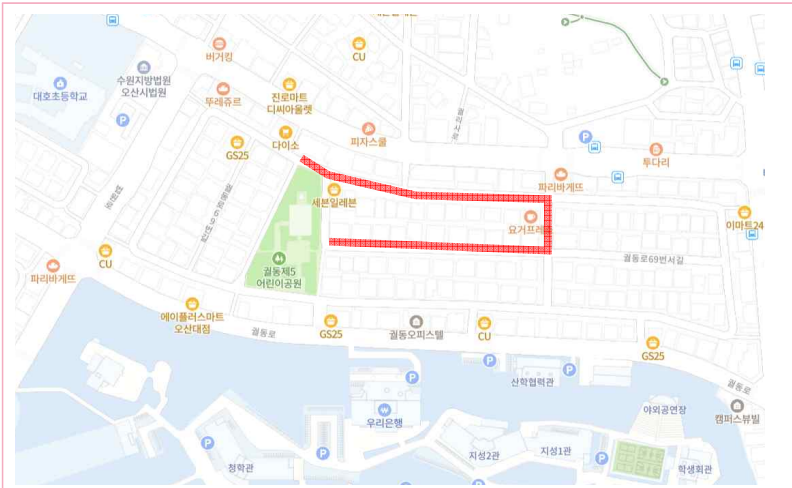
마르쉐를 비롯한 행사가 진행
중인 서울 오목공원 사례

- 공원과 대로가 만나는 지점에 재활용박스를 설치, 투명페트병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지역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



페트병 수거 및 포인트 적립

○ 지역축제 (지역활동가 및 기획자양성, 지역주체 간 네트워크, 상권 활성화)



- 오산대학교 후문에 위치한 제5 공원과 이면도로 상권을 연결하는 지역축제 개최
- 대학생, 청년 그룹의 기획 운영 참여를 통한 지역의 활동 그룹 발굴 및 양성
- 지역 주체 간의 축제 준비과정에서의 네트워킹 및 협업

<p>사업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확인 · 이주민 그룹의 세계축제에 대한 욕구와 참여 의사 확인 ·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의 상권 활성화 및 준비과정에서의 지역 주체의 네트워크 형성 · 대학생, 청년 그룹의 참여를 통해 지역 인재 양성 및 청년층이 궤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p>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동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다문화축제 (지역 내 거주 및 상가를 운영하는 이주민 그룹, 가족센터와 참여 및 협업) 	 <p>안산 다문화마을 축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궤동의 상가와 함께하는 비어가든 형태의 축제 운영을 통해 상권 활성화 · 가족 단위, 어린이 참여를 위한 공원 내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플리마켓 운영 	 <p>지역상인 주도로 진행된 목포 건맥 축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년들의 기획단, 행사 운영 참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궤동에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며 이를 양성하여 지역 활동 그룹으로 확대 	 <p>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계상점가 축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 주체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지역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형성 · 장기적으로 축제 운영위원회 상설화로 연례 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향 	 <p>주민 주도로 축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부평 단오제 사례</p>

6) 기대 효과

- 수도권 산업단지 배후 지역재생 선도 사례
 - 서울,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 지역은 산업단지의 이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배후 지역의 슬럼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나 산업단지 부흥기에 조성된 주거 단지의 특성상 높은 밀도와 좁은 거주 공간 등으로 지역재생이 쉽지 않은 상황
 - 정주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 모델이나 상업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화 전략만으로는 해당 문제를 해소할 수 없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딩이 필요
 - 궤동의 활성화 진행 시 수도권에서의 배후 지역재생의 선도 사례로 정착
- 슬럼화되고 있는 '궤동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개발된 인근 주거 단지의 근린시설의 역할과 지역 주민들이 만나는 광장의 역할로 발전
 - 우범지역이라는 인식과 상권 침체로 슬럼화되고 있는 궤동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개발된 인근 주택단지에는 없는 먹자골목 상권이 남아 있는 지역. 또한 오산대, 대호초 등의 학교 입지로 요식업 외의 다양한 서비스업 상권이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는 지역
 - 지역재생 및 활성화를 통해 인근 단지에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레 마주치는 광장의 역할로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접촉면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지역의 광장으로 역할을 수행
- 주거 취약 계층의 역량강화 및 지역단위 거버넌스 구조 구축을 통한 지역 소통구조 확립
 - 1인 가구, 이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조적인 활동을 통한 지역 갈등 예방
 - 지역 내 다양한 주민조직,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 간의 거버넌스 구조 구축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 지역재생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
- 오산에 걸맞은 지역재생 모델 구축
 - 궤동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오산 내 다양한 지역에 적용 가능한 지역재생 모델 및 문제 해결 솔루션 체계 구축

CHAPTER 4

부록

4.1 FGI

1) <궐동 1인 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 지역조사 FGI #1_1인 가구

일정	2025년 6월 30일 (월) 14:00~16:00
장소	오산 칠복센터
시간	2시간
참여자	A : 여, 76세, 무직, 수급, 궐동 22년째 거주 B : 여, 75세, 무직, 하얼빈에서 가족이 함께 이주 C : 남, 56세, 무직, 수급, 궐동 3년째 거주 D : 남, 39세, 무직, 수급 신청 중, '늘푸름'에서 우울증 치료 중

연구 문제	질문
1인 가구 이유와 계기	1. 어떻게 혼자 살게 되었습니까? 2. 당시 생활은 어떠하였습니까? 3. 혼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4. 현재 생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심리적인 어려움	5. 외로움, 고독감을 언제 느끼고 얼마나 자주 경험하나요? 6.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가요?
필요한 지원	7. 주거, 건강, 일자리, 사회적 관계 등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요?
기타 사항	8. 궐동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9. 궐동의 아쉬운 점과 변화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0. 궐동에는 어떤 이웃이 사나요? 11. 궐동에 사는 이주 외국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A

나는 원래 47년생인데, 주민등록 나이는 76세. 옛날에 계집애라고 나이가 줄었어요. 이 친구(B B)는 궐동 등기소 있는 데, 나는 권리사 앞에 살아요. 한 동네죠. 자주 만나요. 낮에는 둘이 붙어 있고 잠만 따로 자러 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아침 먹고, 교회 밥 먹는 데 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각자 물리 치료하러 병원에 갔다가 각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는 거예요.

B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같이.

C

저는 69년생이에요. 닭띠.

A

저는요, 며느리 얻고서 23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2006년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머리 뽕개져 가지고 38바늘을 꼬맸고, 갈비뼈 부러졌고. 척추 4개 무너졌고, 발목 부러졌고. 그래서 빈센트 병원에서 19개월 있었는데,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60살 먹은 큰아들이랑 같이 수원 살다가 오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수원에서 남편이랑 제가 삼성 코닝을 27년 다녔어. 그러다가 1980년도에 구미 제2공장을 짓는데 거기 아줌마들 일을 가르치러 갔어요. 그때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안계시니까, 내가 거기를 지원해서 갔어. 열심히 일하니까, 삼성에서 집을 사준거나 마찬가지로, 그때 며느리가 23살에 우리 아들하고 만났어. 완전 야기지. 근데 일찍 결혼 시켜가지고 개한테 살림을 맡기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돌아오는 거야. 매주 토요일 날 1시 차 타고 수원에 왔다가, 일요일 날 10시 차 타고 가면은 거기 새벽 1시에 떨어져. 구미 제2공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1년 반 동안 일하고, 3년치 월급을 받은 거지. 그렇게 절약 절약해가지고 집을 장만했어요, 우리 아들이 중장기 수리, 지게차, 포크레인 고치면서 임대 놓고 있어요. 좋은 직업은 못 돼요. 그 아들이 엄마 수원은 땅값이 비싸니까 오산으로 내려가자고. 그래서 너희들만 가라고 그랬는데,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돈 벌면 집 지어줄게. 그래서 집을 팔고 내려와서 공장 짓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삼성을 55세 정년퇴직하고, 교보생명에서 보험을 10년 했어요. 내가 교보생명 시험을 봐서 붙었어. 그때 120명이 봤는데 86명이 붙었어. 출근만 하면 하루에 만 원씩 차비 주고, 그때는 점심 한 끼에 1,500원씩 했으니까 밥값까지 다 주는 거야. 땀길 데 없으니까 출근했다가 강의 듣고 목욕탕에 가 있다 저녁에 집에 오고 그랬어요. 보험을 할 줄 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능숙해지고, 사람들이 자청해서 보험을 해줘서 여왕상까지 타 봤어요. 인맥이 많으니까, 삼성 코디만 해도 2천 명 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 공장이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목발 짚고 못 올라가잖아요. 아들이 엄마 목발 하는 동안만 2년 따로 살아 그러면서 여기 쫄리사에다가 원룸을 얻어줬어요. 거기서 한 5년 살았는데, LG전자에서 그 집을 기숙사로 산 거야. 그래서 갑자기 내주는 바람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을 얻어서 이제 17년째 살아요. 궤동에서만 22년을 살았네. 근데 이제 손주들 둘 장가보내고 며느리도 아들하고 둘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안 들어가요. 그냥 내 멋대로 밥하기 싫으면 나가서 사 먹고. 지금 며느리들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강아지 간식은 사다 줘도 시어머니 건 안 사 온다고 그러잖아.

B

뭐 아무거나 돈만 있으면 되지. 아들은 없어도 그만이에요.

C

저는 정보통신 공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집이 동탄이었는데, 집 팔고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그래서 오산으로 이사를 와서 혼자 살았어요. 동탄이 오산하고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리고 오산 쪽이 동탄에 비해서 방값이 엄청 싸죠. 그래서 궤동 쪽으로 이사를 온 거죠. 이제 이리로 온 지 3년 됐어요.

D

저는 대전에서 살았는데, 스무 살 때 군대 갔다 제대하고 나서 일없다고 동생이 오산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적응을 못 했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다니던 데 퇴사하고, 10년 정도를 택배회사 다니면서 집 없이 떠돌이 생활했거든요. PC방이나 찜질방 다니면서 10년 정도 지내다가 나중에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이 점점 망가지더라고. 특히 밤에 일하니까 그게 더 심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30살쯤에 다시 오산으로 와서 정착하려고 알바 천국에서 공

장을 찾아 전전했어요. 5년 정도를 이 공장 저 공장, 동탄이나 여러 군데 피킹 작업이라든지 공장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때 제가 우울증하고 무기력증이 되게 심하게 왔는데, 병원도 안 가고 정신병원도 안 갔어요. 그래서 선임이나 윗사람한테 한 소리 들으면 열이 확 올라와 가지고. 화를 참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바로 그만둬서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공장을 돌아다니다가 작년 7월까지 퀸텀이라고 술을 납품받아서 다시 업체에다가 날개로 보내는 그런 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기력증이 심하게 왔어요. 그러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었고. 아파서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올 1월 초쯤 복지센터 장옥희 쌤한테 연락을 드리고 제가 직접 찾아갔어요. 거기서 상담받고 지원받고, 늘푸름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늘푸름은 정신 질환이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치료받는 곳이에요. 혼자서 고독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궤동으로 온 게 2020년쯤이에요. 10년 정도 떠돌이 생활하다가 돈 없고 갈 데 없고, 부모님이랑 연락도 안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오산 와가지고 일자리 알아보고 그랬죠. 화성 쪽에 공장 지대가 많으니까 일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전전하다가 퀸텀에 장기간 있게 됐죠. 퀸텀은 진위역 가는 길 LG전자 뒤쪽에 있어요. 제 동생은 지금 병점에서 애 낳고 잘살고 있어요. 지금은 동생하고도 연락하지 않아요.

A

혼자 사는 게 더 편해요. 아들, 손주 다 자기네 먹고 살려고 그러지. 나는 사회복지센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수도꼭지 고장 나면 그 양반들 신세를 더 많이 저요. 내가 삼성을 다녔으니까 자식을 대학교까지 가르켰지. 나 39에 혼자 됐거든요. 작은아들이 닭띠, 이 양반하고 똑같은 나이여. 지금 증손주가 두 마리 있어요. 11살, 7살. 근데 7살 먹은 애는 어떻게 똑똑한지 말을 못 이겨. 나는 혼자 사는 게 진짜 편해. 지금 생계는 어떻게 하나면, 삼성에서 연금이 조금 나와요. 내가 큰아들, 작은아들 장가들이면서 국민연금을 두 번 타서, 남은 거 몇 푼 나오고. 또 정부에서 30만 원씩 주잖아요. 월세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전에는 여기 살기 좋았어요. 근데 한 5년 전부터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 그리고 장사가 안되는 거야. 그때 가게 문 닫은 데가 많아. 그리고 이 친구(B)도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여. 중국 사람이야. 아마 이 친구가 나하고 하루에 한 끼씩 30끼는 같이 먹을 거야.

이렇게 혼자 살아도 어느 때 외로우냐 하면, 아플 때. 그리고 증손주들 보고 싶을 때. 내가 우리 손주들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데리고 와라. 얘기해요. 한 번씩 오면 큰 애나 작은 애나 5만 원짜리 달래. 우리 손주가 연애 걸어가지고 손주 며느리 배가 이만한 걸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놈의 자식 꽃뱀한테 걸렸다고 애를 그냥 막 야구방망이로 패는 거야. 애 죽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난 너희 집에서 안 산다. 내가 나오니까 손주들 둘이 따라 나와. 보니까 큰며느리도 쫓아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관에서 애들이랑 며느리하고 다 데리고 자면서 밥 먹었어. 아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왜 애를 때리냐. 그 딸도 집에서 얼마나 귀한 딸이여. 지금도 증손자들이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와요.

B

궤동에 나 지금 15년 됐어요. 나는 하얼빈에서 와서 서울에 있었고, 딸이 먼저 궤동에 왔어요. 1996년쯤에 큰어머니가 초청해 가지고 왔는데, 큰 집에서 내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집에서 일 암만해도 돈은 안 된다, 너 서울로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처음에는 우리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조경 일을 했어요.

C

궤동이 원래는 살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였어. LG가 이사 가기 전에는 장사도 잘되고. 근데 LG 기숙사가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LG 사람들이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펴요. LG에 들어가서 일을 해 보니까 정말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 여자들도 남자들도 있어. 담배꽂초가 쌓여 있어. 그 사람들이 다 이사 가면

서 장사가 안되기 시작했어요. LG 본사가 이사 간 게 한 7~8년 됐나. 그때부터 동네가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완전히 싹 망하기 시작하더니 집도 잘 안 나가, 궤동이 그래서 집값도 싸요. 내가 이사 올 때만 해도 200만 원 이하짜리 집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보증금 없이 빌려주는 집들도 많아요. 그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요. 저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하죠. 돈이야 뭐 많아도 적어도 없는 거고, 늘 그 정도.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를 안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요. 의료보험 1종¹⁾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야.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일 좀 시켜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잘리는 거야. 당신이 일하다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일하고 싶죠, 일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해야 그게 정상이죠. 제가 심장 쪽이 안 좋아요. 심혈관 쪽에,

D

저는 수급 신청 대기 중이에요. 전에는 가끔 긴급 생활이 됐고, 일 안 다니고 나서는 긴급 지원비 3개월을 받았고. 이번에 수급 신청을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수입이 딱히 없어요. 일하고 싶어도 지금 생활 패턴하고 약 기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일을 시작해도 금방 그만둘 것 같아서, 늘푸름에 가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천천히 카페 알바 같은 형식으로 2시간 정도 연습 삼아 일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일도 못 하니까 신청했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C

기초생활 수급자가 궤동에 제일 많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아파트가 기초생활 수급자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제일 많아요.

A

궤동이 수급자가 최고 많대요.

D

저도 이 아파트 살고 싶은데 여기 어떻게 오는지 몰라서..

C

이 아파트요?? 들어 오기 쉬어요.

A

오산이 물건값이 최고 비싸요. 경기도에서 오산, 송탄, 평택까지가 최고 비싸. 내가 수원에서 40년 살고 여기 오산에 왔는데, 수원에 두부가 9천 원이면, 여기는 1만 원이에요. 시골에서 농사지은 배춧값도 여기가 더 비싸. 오산이 물건값이 굉장히 비싸. 나는 지금도 오산역에서 전철 타고 수원에 자주 다녀와요. 일 주일에 두세 번은 가요.

C

궤동 오산시장 물가가 되게 비쌉니다.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하고 비교해서 되게 비싸요.

1)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의해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1종 수급권자로 인정받는다.

A

신도시 세교가 여기서 가까운데, 거기가 집세가 비싸요. 우리 손주들도 장가들고서는 다 그리로 가는 거야. 옛날에 살던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싫다고 다 그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교 신도시는 집세가 비싸요. 난 안 살아봤지만, 우리 손주들 둘이 다 거기를 원하는 거야. 나는 저기 한라아파트에서 3년 살고, 여기 궤동 두 군데에서 22년, 남촌동에서만 한 25년 사는 거야. 처음에 한라아파트 들어가려고 전세 얻어가지고 남촌 슈퍼 옆에서 3년,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살았었거든요. 지금은 오산에 정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수원 친구들한테 내 별명이 멧쟁이 아줌마야. 근데 오산에 와서 신세 조졌다니까.

D

저는 거의 편의점을 이용하고 밖에 잘 안 나가서. 편의점은 물가가 똑같아요. 그리고 식자재를 직수입하는 식자재 마트 가보면은 비싸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놀란 게 여기 식자재 마트가 재래시장보다 가격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쿠팡도 물건이 싸다 보니까 식자재 마트 아니면 쿠팡에서 물건을 사고 있어요.

C

저는 재래시장을 이용해요. 집에서 지원받은 쌀로 밥을 해 먹어요.

D

저는 거의 라면을 먹어요. 뭘 해 먹으려고 해도 공간도 여의치 않고. 싱크대는 있는데 거기서 뭘 만들기에는 엄청 좁아가지고, 거의 사 먹거나 아니면 햇반 같은 거나 지원받은 쌀로 밥을 해서 먹긴 해요. 반찬이 없으니까 집에서 해 먹기도 그렇고, 반찬가게가 근처에 없어가지고 좀 멀리 가서 사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김치 싼 거 사다가 젓갈이랑,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C

밥을 해 먹으려고 하면 준비할 게 너무 많아. 조미료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A

혼자 사나 10명 사나 있을 건 다 있어야 되니까. 복지센터에 가서 점심 한 끼 먹는 게 그게 영양 보충하는 거야.

D

저도 늘푸름에서 식사해요.

B

혼자 있으면 음식 해 먹을 것도 대충 때우고 그러지. 가족이 모여서 살 때처럼 하려고는 안 하는 거라.

A

아침에 찌개 끓이면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먹지. 그냥 일주일에 두 번밖에 안 해요.

B

밥을 그릇에다 착착 담아놓으면 4~5개는 되니까, 이를 사흘 먹어야 다 먹지. 채소도 좀 괜찮게 먹으려고 하면 많아져서 그것도 하루 종일 갈 때도 있고, 친구네 집에서 먹든가 어디 가서 한 끼만 먹으면 네다섯

끼를 가요.

A

평상시에는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아플 때나 외롭지.

B

평상시에는 진짜 어려운 거 몰라.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한 발자국만 가면 다들 모여서 음식을 내놓고 먹어라. 이러니까. 그런데 병들었을 적에는 누가 병들었는지 모르지. 말을 해야 아픈지 안 아픈지 알지.

A

사람이 이틀만 안 오면 죽은 거야.

B

우리 여자들은 따로 혼자 살아도 남자들 같지 않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친구들과하고 놀고, 야 이거 오늘 내 집에서 먹어 봐, 이런 거.

C

혼자 살면 외로울 때가 가만히 있을 때, 말할 사람이 없을 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한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보는 거죠. 근데 특별히 갈 데가 없죠. 집에서는 유튜브만 보는 거죠. TV도 인터넷 연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만 보는 거죠. 재래시장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죠. 3일 하고 8일 장이니까. 시장 가지 않는 날은 집에서 그냥 침대에 드러누워 있어. 그리고 나갔다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샤워 한 번 하고 그냥 드러누워 있어요.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복지는 정말 잘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A

엄청 잘 되어있어요

C

이제는 65세 이상 되면 버스비도 안 받는다고 그러죠.

A

화성시, 용인시, 이런 데 다녀보면 오산만 버스비 받아. 저기 양감 쪽으로는 시내 버스비를 안 내요. 근데 오산만 내, 오산만.

C

며칠 전에 제가 다리가 아파 가지고, 갑자기 통증이 생긴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칠곡센터까지 내가 기어 왔어. 그래가지고 병원 가게끔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택시를 불러 주는 거예요. 그 택시 타고 병원 갔지. 여기 아파트 단지 살면서 이웃 사람들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B

친한 사람 한두 명은 있어야 대화도 하고. 급할 때 전화를 해서 나 어쩔다 하고 기다려도 보지. 어쨌든 내가 사는 주변에 한두 사람은 알아둬야지. 혼자 살수록 그 단도리는 해야지.

D

모여서 만날 공간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으로만 생활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이 된다고 하면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 하거나 그걸로 버티는데, 유튜브도 안 되고 게임도 핸드폰도 안 됐을 때는 누워서 그냥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거의 자살, 고독사 직전까지 갔었는데 진짜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싶어서, 장옥희쌤이 몇 번 도와줬던 게 생각나서 그때 센터에 간 거거든요. 원래 제가 남하고 대화를 하는 게 불편해 가지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말을 해도 횡설수설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9시 반까지 늘푸름에 가서 3시 반에 집에 와요. 나머지는 집에 누워서 그냥 핸드폰 해요. 인터넷이 지금 안 돼서 불편해요. 그전에 핸드폰 안 됐을 때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멍하니까 살지 말까 계속 이 생각을, 죽을까, 죽을까, 죽을까. 근데 시도를 못 한 게 높은 데가 요즘은 문이 잠겨서 못 가고. 자살은 하고 싶은데 아픈 게 제일 싫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한 이후로 곁에 통증을 웬만하면 다 버티는데 몸 안쪽에 있는 통증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지금은 신경안정제랑 우울증 치료제, 수면 유도제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조금씩 정신을 치료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거에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남들이 먹는 것보다 한 숟가락 정도 더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음식을 적게 준다던가 제대로 못 먹으면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C

TV 보면 왜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안 좋은 행동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선 때문에 편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중국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중국 분들이 많으니까 무슨 해코지 당할까 그런 심리적 압박감. 보편은 경찰차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순찰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 같아요.

D

실제로 살면서 범죄나 사람들 싸우는 것도 없는데. 옆에 유흥가가 있다 보니까, 밤에 보면 고성방가라든지 술 먹고 소리 지르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고.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 주변에 중국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좀 많아요. 근데 뉴스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인식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불안한 것 같아요.

C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옆집에 경찰차가 와가지고 소독약을 막 뿌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죽었어. 자살한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한국 사회에서 죽을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걸 찾아서 가야지, 누가 옆에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로 가요. 거의 일주일에 5일은 수원에 있는 교회를 가. 여기서 가는 데 한 2시간 걸리잖아요. 오는 데 2시간 걸리고. 근데 우리 집에 오는 버스가 잘 없어서 가는 데 3시간, 오는 데 3시간 걸리고 그래요. 거기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야 시간이 잘 가지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청년들이 고독사하는 이유가 사람들 만나기 싫고,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나가기도 싫고, 나가는 무섭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만히 누워서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요즘 청년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가 청년 노동 지원 사업에 갔는데 대부분이 여성분이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대요. 그런 거라도 신청을 안 하면 고독사할 수 있겠죠.

A

내 스스로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B

자발적으로 바깥출입을 자주 해야지. 동네는 안전해요. 그런데 집 문 앞에 차들을 다 세워놓고, 청년들은 자전거 타다가 아무 데나 막 해놓지. 길마다 이러니 사람이 마음 놓고 땡길 수가 없어.

A

젊은 애들이 진짜 너무 그래. 난 거의 저녁에는 안 나가.

D

집에서 나가면 불법주차가 많고 자전거도 지나가고 시야가 거의 차단돼 있어요.

B

그런 차는 아무 데나 세워놔도 아무 말이 없는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국자

중국 사람은 의심이 많아. 사람을 오래 사귀어보고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의심 먼저 해.

D

거의 중국 말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말을 안 하시고. 지나가면 들어보면 거의 다 중국말만 해요.

B

우리는 중국 사람이 오면은 중국말로 하고, 조선족끼리는 우리 말 그냥 해. 중국에도 한국말 배우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 살던 동네는 조선족이 한 200호 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은 조선말을 배워야 된다면 조선학교를 자발적으로 열어서 공부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하지.

D

제가 느낀 건데요. 지금 궁동에 동남아시아 분들이 많아요. 중국 분, 동남아시아 쪽 반반.

A

오산시에서 궁동이 외국인이 최고 많아. 근데 외국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

B

나는 중국에 가고 싶지는 않아. 궁동에 온 중국 사람들 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고 나는 이 언니 만나서 진짜 말도 더 잘하게 됐고.

D

중국 사람들은 비자 때문에 6개월인가 1년도 채 안 돼서 바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B

친척이 있어서 초대 온 사람은 비자 걱정이 없어요. 나도 비행기표까지 사서 주면서 와라, 여기에 오면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원래 대구로 왔다가 대구에서 우리 큰어머니가 서울로 올라가라 했지.

A

초대받은 사람은 안 가. 지금 대한민국같이 살기 좋은 데 없어.

C

저 같은 경우는 공원에 그냥 바람 쐬러 가요. 근데 거기 나온 분들하고 이야기는 안 해 봤고요. 복지관 사무실에서 행사할 때 한 번씩 가보죠. 물총 싸움을 한다든가, 무슨 뽑기를 한다든가 할 때.

A

나는 공원 가서 가끔씩 운동기구 사용하지.

B

그럼. 근데 그거 있는 공원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A

우리는 호수 부지 돌 때가 많지. 자주 가지.

D

청년은 공원에 잘 안 가요 청년들은 거기 담배 피우러 가죠. 저는 공원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고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잘 안 가요. 그리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공원에 청년이 없어요, 공원 의자도 나이 드신 분들만 몇몇 잠깐 쉬었다가 가지지 그 외에는 못 봤어요.

C

저 같은 경우는 담배꽂초를 줍는다던가 하는 공공근로를 확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쓰레기봉투랑 집게 하나 주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을 또 알게 되잖아요. 물론 그 일로 돈을 벌어도 좋지만. 전에 내가 귤동 쪽에 있을 때, 쓰레기를 줍고 다니는 팀이 있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건의하자, 자꾸 이러다 보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 공공 근로를 확대해서 최저시급, 아니 최저시급의 반만 좀 달라고 그러자, 그럼 안 나올 사람도 나오지 않겠냐, 밥값이라도 주자, 근데 안 됐지. 다 우리 또래, 50세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방범하는 형님 보고, 형님이 맨날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니까 가서 건의를 좀 해 보라. 1만 원을 주든 5천 원을 주든 한 달 내 겨우 밥값만 주든 청소 한번 해보자. 동네 어떤 데 가면 담배꽂초가 이따만큼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술집 앞에. 한번 청소를 했는데, 진짜 담배꽂초가 이만큼씩 나와요. 처음에는 자원봉사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어들다가 아예 안 나오니까, 결국 못했어.

A

65세 이상이 돼야 돈을 주지. 아니면 큰 장애가 있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D

청년은 그거를 몰라요.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보거나 티비 보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혼자 사니까 누가 방문을 해 줘야만 그걸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방문해줘가지고 사회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모르니까 못하게 돼요. 알바 천국이나 그런 데는 일자리가 나와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늘푸름 같은 쉼터, 어르신들 말고 청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료로 운영하는 PC 네다섯 대 놓고 컴퓨터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용하고 나머지는 이루잡 같은 느낌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루잡이 제가 보기에 좀 거리가 있거든요. 궤동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동사무소 같은 데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주면 좋겠어요, 이사하면 동사무소 가서 신고 하잖아요. 그때 문자로 알람 같은 거 보내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그럼 찾아오겠죠. 저도 늘푸름에서 알려줘서 청년 보존 지역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루잡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고독사로 죽어요.

A

오산 복지센터에서 문화프로그램 1시간짜리랑 비교하면 수원에서 2시간짜리가 더 짧게 느껴져. 내가 옛 그제 오산 프로그램해 봤는데, 진짜 별로야. 매달 마지막 월요일 날은 수원에 가서 프로그램해요. 2시간 하는데 1시간이 체조, 1시간은 만들기. 오산은 선생님들이 시원찮아. 졸려서 못하겠어.

A

동네에 단골 가게 있죠. 늘 가는 원마트. 몇 년을 다니니까 내가 누군지 다 알지.

C

원마트, 카페 쪽 들어가면 있는데. 여기 아파트단지로 이사 오기 전에 자주 이용했죠.

B

길가에 나무 심어 놓았잖아요. 근데 나무 주위에 풀이 많이 나도 풀 한 번 뽑는 사람이 없어. 풀을 1년에 네 번만 뽑아도 풀이 없을 거라고. 근데 어디는 거기다 꽃을 심어 놔더라고. 잔잔하게 피는 꽃하고 봉숭아를 심어 놔어. 이 사람 풀 뽑기 싫으니까 꽃을 심어놨구나. 이래도 좋긴 좋구나.

D

지난번에 여기서 원에 프로그램, 꽃 심기를 했거든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서 갖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사는 노인분들을 상대로 하니까 다들 만족하시더라고. 청년도 노인분들처럼 여기서 뭐 만들어서 갖고 가거나, 아니면 복지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거나 떠들면서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요즘 빨래방은 기분이 만원 정도여서 잘 안 가게 돼요. 집에서 그냥 빨래 묵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집에서는 빨래도 잘 안 되고, 저같이 반지하 사는 사람들은 마르지도 않고 냄새나고 하니까, 빨래방 가기보다는 그냥 옷을 사요.

C

아파트 근처에 마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식자재 마트라도. 그리고 궤동에는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가 없어요.

D

저는 궤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들 있잖아요. 거기 말고 한 군데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차난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C

퀄동이 주차난이 진짜 심해요.

A

그거는 퀄동 전체 다 그래요. 대학교 있는 데도 다 그래요.

A

지금 사는 데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3층이라 힘들어요.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그래도 나는 퀄동에 정이 들어서 다른 데로 안 가.

C

나는 퀄동에 별로 안 살고 싶어. 시끄럽고 차도 너무 많고.

D

방음도 문제예요. 방음이 거의 안 돼요.

C

여기 아파트단지로 이사 오니까 훨씬 낫죠. 조용하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오래 살고 싶어요.

D

저는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문은 닫아놨는데도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가거나 발소리가 심해요. 차 소리도 나고. 어떨 때는 고성방가 하거나, 시끄럽게 떠들거나, 아니면 밤에도 소리를 퍽퍽 질러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받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기관지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기침을 하고 나면 목이 쉬어요. 동네에서 교류하는 이웃은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들 조용히 살아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냥 조용히 살아요. 누가 뭘 할지도 모르고. 영화 '도어락'에도 나오잖아요. 저희 빌라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사는데 보호가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중국분, 동남아시아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하더라고요. 저희 층에 한 여섯 가구가 살아요. 그중에 동남아시아인이 사는데 맨날 나갈 때마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나가거든요.

저희 빌라는 공동 관리비를 6만 원 내고 있어요. 계단실은 주인이 따로 관리해요. 저희 빌라가 많이 싸요. 보증금 30만 원 내고, 월세가 25만 원. 처음에는 18만 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서 그거 청소한다고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월세가 더 오른 거죠. 전기 가스비는 따로 내고. 근데 거기만 한 데가 없어. 옆방 소리는 안 들리는데, 화장실 변기 내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C

퀄동에서 한 3년 살았는데 교류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복지관에 모여서 부모님한테 단체 제사 지내는 걸 매년 해요. 그 제사 지낼 때 제가 지방을 써줘야 돼. 그때 모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D

청년은 그런 것도 몰라요. 청년은 복지관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A

이 주변이 좀 걸어가기 힘들지만, 운동 삼아 걸어가는 거야. 나는 목욕탕만 가까이 있으면 그만이야.

C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빌라는 보증금 200만 원, 월세가 25만 원. 공동 관리비는 1만5천 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기, 수도세 전부 거의 면제. 여기 아파트는 보증금 160만 원, 관리비는 12만 원. 이번 달에는 7만 원.

A

우리 빌라는 보증금이 300만 원, 월세는 30만 원. 전기세는 빠고. 공동 관리비는 한 2~3만 원.

B

나는 전세를 나라에서 해준 거라. 그래서 공동비는 4만 원 내고, 전세는 4천만 원에 내가 100만 원.

A

여기 귤동에 바뀐 게 있어요. 처음에 내가 살 때, 20년 전이지. 그때는 세탁소에 가서 세탁물을 맡기고 찾으러 갈 때 돈을 냈거든. 지금은 세탁을 갖다 맡길 때 현찰을 내야 해줘. 선불제야.

D

세탁소에 옷이 진짜 많더라고요. 안 가져가서.

A

우리는 우유를 먹고서 나중에 돈을 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금을 받는다고. 우유 배달하는 사장님이 그러는데 외국 사람은 무조건 한두 달은 떼는데. 그래서 후불로 안 한다고 그러잖아. 나는 우리 빌라 사람들 하고 친해요. 다들 저희 할머니인 것처럼 할머니는 어디 다녀오세요, 그래. 이 아우가 병을 주우러 다니거든. 그래서 나도 아침에 일찍 쓰레기 갖다 버리면서 병이 눈에 보이면 주워서 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빌라에 와서 한두 달 사는 젊은 사람이 우리 문 앞에 병을 갖다 놔. 그게 고맙지. 새로 누가 이사 오면 우리 총각 여기 이사 왔나 봐 내가 그러지. 그리고 학생들 보면 우리 손주 하나 또 생겼네, 이러지. 우리 빌라는 한 층에 여덟 가구, 5층, 전체가 40가구쯤 되지. 주인이 나한테 잘해요. 어머니 이사 가지 말고 여기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추석 구정 때마다 선물을 해. 받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선물을 푸짐하게 해. 그리고 옥상에 나쁜 애들 올라와서 자고 그런다고 옥상 관리도 시키고.

D

저희 빌라에는 저런 분은 없어요. 대부분 단기로 계신 분들이셔서, 저하고 저 옆집만 장기로 있는 걸 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친해지면 또 나가고 하니까 친해져 봤자죠.

A

하여튼 한 달을 살다가도 얼굴을 한 번 봤으면 난 다 해. 내가 하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해. 그리고 우리 집에는 젊은 사람들이 내가 무거운 거 들으면 저기서 보고 와서 들어다 줘. 내가 할 탓이야. 교류는 내가 할 탓이야. 내가 말 안 하면 상대방도 말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어.

2) <궐동 1인 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 지역조사 FGI #2_궐동 상인

일정	2025년 7월 02일 (수) 13:00~15:00
장소	궐동 00 부동산
시간	2시간
참여자	E : 여, 69세, 00 부동산 대표, 10년째 운영 B : 여, 40대, 00 부동산 실장 G : 여, 50세, 00 반찬가게 대표, 9년째 운영

질문	
	궐동에서 어떤 영업을 하며, 얼마나 운영하였나요?
	가게를 주로 찾는 손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궐동 상권의 특징 혹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궐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궐동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 있다면 상인회를 만들 의향이 있나요?
	궐동의 범죄 혹은 1인가구 문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궐동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G

가게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00 반찬 가게'예요. '만나다'의 그 만나와 하나님의 양식 '만나'. '오늘 만나' 이런 의미도 있고, '아 맛나다'란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양식, 만나'의 의미도 있고.

E

저는 여기서 00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거의 10년 다 돼 가죠. 부동산 한 지 20년 됐어요. 평택 안정리 쪽, 안성, 그리고 평택 합정, 송탄 그런 데서 다 했어요. 여기 궐동에 라스트로 왔어요. 저는 여기 힘닿는 데 까지 있을 겁니다. 1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궐동이 변화하는 걸 거의 봤죠. 근데 월세가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기준이 뭐냐면 오산에 공사가 많으면 사람들이 왕창 들어오고 공사가 없으면 짝 빠지니까 너무 변동률이 심해요.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여기 세교동에서 공사가 끝났잖아요. 아니면 평택 쪽이나 화성 동탄에서도 이쪽으로 방을 많이 구하러 와요. 근데 그게 지금 뜸해졌어요. 현장 인부 숙소로 사용하느라 그런거죠. 기복이 엄청 심해요. 월세가 10만 원 이상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활성화된단든지 기업이 돌아간다 하면 되는데, 기업이 안 돌아가고 경기 활성화가 안 되면 지금 더 힘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이제 급작스레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10년 전에는 여기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웃소싱이 많아 갖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궐동으로 많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는 방을 구할 때 보증금이 작아도 월세를 3개월 6개월 정해서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일로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평택, 화성에서도 오는 거죠. 근무지는 그쪽인데 일로 많이 와요. 근데 지금 그것도 조금 빠졌어요. 지금 저번 달 보다 급격히 더 빠져요. 조금씩 그랬었는데 지금 심해지게 빠지는 상황이에요 중국분이 빠진 지가 오래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여기 그냥 머물러 있는 스타일이고. 중국인들은 표도 안 나고 대부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아니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 쪽 이렇게 있지. 지금 제일 많은 게 우즈베키스탄.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을 못 구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사람들조차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일이 지금 없대요. 최근 1년 정도 있던 사람이 요번에 뺏어요.

날짜가 안 지났는데 사무실이 일이 없으니까 인력을 안 구하고 사무실을 아예 접어버려갔고. 나라 경제

가 일어날 때는 건설 경기가 활성화 돼야지, 건설 경기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버려. 요즘 경기가 엄청 위축돼가지고. 시에 착공계가 자꾸 들어가면 거기서 입소문 타고 다들 와요. 근데 요즘은 방을 미리 빼는 추세, 일자리가 없다.

내가 처음 여기서 부동산 할 때는 보증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생계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집으로 보내는 돈이 많아요. 여기다 보증금을 많이 놓을 수가 없죠. 또 한 군데 오래 있다는 보장도 없어, 서로 일하면서 여기가 더 좋으니까 가자 이러면서. 여기 원룸이 엄청 많잖아요. 이동이 많아서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관리가 안 들어가면 주인들도 자기네가 월세 놓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주인이 타지 사람이 많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일부러 주거지를 이리로 옮겨놓는 거지.

외국인들이 절반 넘게 사는데, 중국 분들은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많고.

G

반찬가게 지금 9년 차 들어가고 있어요. 전에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 했어요. 저쪽에서 15년, 그러니까 궤동에서 총 23년을 있었어요. 23년 있으면서 아이들 키우고, 어린이집 세 군대를 제가 운영 했거든요.

그때 LG가 있었기 때문에 문밖에 줄 서서 들어올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문 닫아요. 어린이집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찬가게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는 줄을 섰었고, 그다음 원장님한테 인수인계할 때도 줄을 섰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 두고. 엄마가 반찬가게 하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갔다가 불박이가 돼버린 거죠. 엄마가 사장님이시죠. 옛그저께 죽담로로 이사를 했어요. 궤동에 살고 있고 엄마는 제일 아파트 살고 계시고.

반찬가게도 경기 기복을 타죠. 하지만 가게에 오시는 인원은 똑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식사는 매일 해야 되니까. 오는 인원은 똑같은데 수입이 줄어들죠. 2~3만원어치 사셨던 분이 1만원~1만5천원, 정말 필요한 것만 구입하시죠. 근데 요즘 들어서 젊은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이 와요. 어떻게 알고 오셨냐니까, 젊은이들은 SNS를 하잖아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더라고요. 전에는 주 고객이 아파트 분들이었다면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찾아서 오고 있어서 의외로 젊은 손님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고객들이 돈을 덜 쓰니까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를 젊은 친구들이 채워주고 있는거죠. 다행히 SNS 때문에 살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중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저희는 중국분들도 많이 오시고 다른 나라분들도 오세요. 영어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 언어로 하면 저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핸드폰을 들이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제가 어린이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할 때만 해도 한 반에 아이들이, 연령대로 정원이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7 대 1 보육을 하는 곳에 외국인 아이들이 한두 명이었다면, 지금은 5명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말을 못 해요. 이게 지금 큰일이거든요. 외국 아이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 하니까, 예를 들어 중국말을 한다든지 파키스탄 말을 한다든지 하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단계잖아요. 3 대 1, 5 대 1, 7대 1 보육 이거는 어린 연령이거든요. 이 연령대 아이들이 주 언어를 트기도 전에 외국 언어를 트니까 좋게 보면 좋은 영향이지만 나쁘게 보면 우리 언어에 대한 정체성이 서기도 전에 혼란이 올 수 있죠. 외국 애들은 또 그들대로 힘든 거고. 예전에는 다문화 어린이집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문화 어린이집 자체가 없고 모두가 다문화 어린이집이에요. 병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외국어를 배워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없어요. 근데 궤동이 특히 더 그렇죠. 제가 여기서만 어린이집을 15년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랑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외국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세요. 저는 사실 여기 부동산 사장님이랑 실장님도 잘 모르잖아요. 여기 상권에 외국인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외국분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E

여기 자리 잡고있는 외국분들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시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스케일이 커요.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 사람들한테는 대출을 잘 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대출

잘 안 해줘요.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도 그렇게 하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건물을 산다하면 풀 대출 해줘요. 근데 한국 사람한테는 안 해줘요.

G

저도 제 집을 중국 분한테 팔았어요. 그들은 대출이 다 되니까요

E

풀 대출이에요. 우리는 그걸 체감하고 있죠. 내가 보니까 여기 상권이 지금 중국 사람이 더 많아요.

G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인지, 차이나타운인지.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이모님이 중국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래? 우리나라 사람은 멀고 비싸도 우리나라 사람한테 가서 팔아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싸거나 하면 다 이동해. 그 이모님도 저희 가게에서 꽤 오래 일을 했고, 지금 한 분은 중국 들어가셨어요. 워젯으로 계속 챗을 하고 지낼 정도로 정이 들었는데, 그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가게에 가서 팔아주고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상가를 내면 부자가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상가를 내면 힘들어. 제가 어린이집 할 때도 저희 학부형 할머니가 중국 조직을 이끄시는 분이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넘어왔다 그러면 바로 그룹톡 같은 루트가 다 있어서 모든 게 그냥 다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뚝뚝 뭉쳐요.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한국 사람들이 튕겨나오는 것처럼 여기 궤동도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차이나타운처럼 한국 사람들은 점점 뒤로 빠지고 있고 그들이 점점 넓혀가고 있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는 맞아요. 다문화고 같이 살아야되는 건 맞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됐던간에 풀어헤치기만 하고, 그들은 뚝뚝 뭉치고.

E

여기는 원룸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흘러서 가는 데예요.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많을 수밖에. 단기로 있는 사람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1인 가구라는 개념이 여기서 그냥 살고자 하는 거주 목적이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1인 가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컴퓨터, 스마트폰 때문에 더 안 나와요. 그냥 그걸로 다 시켜 먹고. 우리나라 회사에서 찾아가 보면 애들이 청소도 안 해갖고 쓰레기도 쌓아놓고 심각해요. 그만큼 애들이 정신 상태가 피폐해져 가지고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중국 사람을 장으로 얹혀 놓게 되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파워가 있어갖고 한국 사람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온 어떤 남자가 방을 보러 왔는데, 내가 왜 전라도에서 일을 안 해야 그랬더니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서로 다 끌고 와서 자기네가 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장의 파워가 있잖아요. 상인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을 위한 상인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인회의 기준을 딱 정해야 돼요.

G

궤동 상인들은 각자 아시는 분들끼리 따로 모이는 경우는 있는데, 상인회 같은 조직은 없어요.

전경희

요즘 오프라인 장사가 안돼요. 비우는 곳도 많고 나가는 곳도 많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최소 5년 이상은 영업을 해야 옆집 상가들끼리 교류가 있을텐데, 1~2년 하다가 손님 없으면 그만두고 다 울상인데 어떤 협력이 되겠냐고요. 옛날에 저기 먹자 골목에서 축제를 했었어요. 시에서 해 주

셨었어요 몇 년 됐죠. 가수도 부르고, 호박 등도 달아주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안 해줘요. 예쁜 등같은 걸로 껌동만의 비주얼을 트렌드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E

문화의 거리 같은.

전경희

불빛이나 그런 것들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특성화를 시키는 게 좋잖아요. 가뜰이나 회사들도 안 되니까 상권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먹으러 와줘야 상권도 사는 거지.

G

제가 상인들을 많이 아니까 물어봤더니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 시에서 만든 큰 주차장이 있으면 뭐 하나. 너무 멀다 이거야. 공용 주차장은 시에서 지어놓은 것뿐이지 저희가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저녁 몇 시 이후에는 도로 라인 한쪽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주정차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갓길 주차를 허용하는 거죠. 큰 도로에서도 항상 주정차 단속을 하니깐 차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넓은 곳으로 가려면 외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술 한 잔 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외부까지 못 나가잖아요.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국인 상가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차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예요.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식당마다 무조건 통 하나씩을 기본으로 주더라고요. 큰 통 말고 작은 통 하나씩 앞에 놔주는 식으로. 상가가 밀집돼있는 지역은 아파트에 자기 키를 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몇 Kg 버렸다는 게 나오는 식으로. 상가들이 연합돼 있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큰 통을 가게 앞에 내놔었어요.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왜 저들 쓰레기까지 내 돈 내고 버려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쓰레기와 주차 공간이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남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저도 너무 아쉬운 거야. 제가 여기 오래 장사한 이 모들한테 여기는 왜 상인회가 없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하나, 해도 욱 먹고 안 해도 욱 먹는 데,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봐야 본전치기인데 누가 그걸 하나하는 거죠.

저는 반찬가게를 하면서 사회복지 팀들과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혼자 사는 청년, 어르신들 독거 가정. 저희는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장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까지 하고 나면 남은 반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장사 끝나고 나면 제가 대어섯 가구를 따로 지원을 해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안 가기 시작한 게, 남자 어르신이 제가 가는 시간에 속옷만 입고 있고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었던 거예요. 그 어르신이 제 뒤를 따라서 저희 가게에 와서는 반찬을 딱 놓으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난 이런 거 필요 없고 같이 먹어줄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가면 안 되겠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거를 지원하겠다 했더니 젊은 청년이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혼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쳐서 나오지를 못하니깐 집에서 완전 고립이 돼서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한테 반찬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복지사님들은 이 사람이 나와야 그게 더 좋은 거라고 하셔서, 제가 반찬을 후원해 줄 테니까 와서 먹고 싶은 걸 찾아가세요라고 했죠. 그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열몇 번을 오더니 청년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얼마 만에 밥을 먹는 건지 모른다고 하면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근데 이 청년이 취업을 했어요. 어느 날 이만큼 아이스크림 보따리를 들고 와서는 더운데 드시고 하세요 저 취업했어요 이러는데, 저 또 눈물나려 하는데... 청년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아들이 시흥에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손을 잡아주면 그렇게 일어서는 걸 보면서... 제가 껌동에서 김밥 봉사를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김밥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효야, 건물주들도 있고 우리보다 잘사는 분들

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되니 라는 거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린 정말 새벽 6시부터 해 가지고 김밥 350줄을 싸거든요. 근데 저분들 우리보다 부자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들은 정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 그 김밥 한 줄로 하루를 살아야되는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김밥 먹으러 오는 거에 감사하자, 그 사람을 위해서 김밥 싣다 생각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350줄을 싸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궤동으로 나오세요. 지원은 따로 없어요. 가게 앞 공원에서 김밥을 나눠드리는데, 그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랬어. 근데 지금은 4년 차 들어가니까 그 어르신이 너무 신나게 마실 나오거나 소풍 가는 기분으로 "야 김밥 먹으러 가자" 이라고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오시거든요

누군가가 조금만 힘을 주면 이게 더 자리 잡아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회원들이 12명이거든요.

12명이 2만 원씩 걷어서 그걸로 김밥을 싸는 거예요. 그리고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3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다행히 돼서 지원을 받았지만, 안 되면 저희가 좀 보태주세요 이라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하고 그룹홈을 지원하고 있고, 혼자 사는 다리가 없으신 분, 눈이 안 보이시는 분, 귀가 안 들리시는 분, 이런 중증 장애인 가정은 나오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반찬하고 같이 들고가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리 토요일봉사단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이름을 사랑 나눔 김밥 드림 봉사단으로 바꿨어요. 매월 세 번째 주 토요일 11시 반에 김밥을 나눠드리기 시작해요. 저희가 아이들은 안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오면 나눠줘요.

저희가 이번에 봉사하면서 한바탕 울음이 터졌던 게, 한 어르신이 대우 아파트라고 이 산 너머에 사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김밥 봉사하는 날 그 산을 넘어서 오신 거예요. 어르신 걸음으로 40분이 걸렸대요. 그렇게 남편분이란 같이 항상 김밥을 거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아프셔서 못 오시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구로 이사를 가셨었다. 그랬다가 1년 만에 다시 오산역 근처로 이사를 왔대요. 근데 할머니가 이사 오자마자 첫 번째 한 게 달력에 세 번째 토요일 동그라미 치는거. 그리고는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마실도 좋지만 너무 힘드셔,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배달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어르신이 저희한테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같이 인사하다가 이거 사진으로 찍어서 김밥 싸고 있는 단원들한테도 보내줘야겠다 싶어서 찍었어요. 한번은 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장애 나간 엄마를 기다리듯이 김밥을 기다리고 있어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그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김밥 싸는 60 넘은 언니들이 우시는 거야. 나도 그 마음 알아, 엄마 장애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뭐라도 갖고 올까 싶어서 기다렸었지.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경희

상인회가 여기 궤동에 없는데, 시에서 어떤 도움을 주시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시대요?

G

상인회가 결성이 되기 전에는 지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전경희

궤동에서도 지금 상인회를 만들 수 있겠네요.

E

상인회 구성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G

아무리 많은 복지가 있어도 우리가 찾아가 먹지 않으면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상인회도. 우리가 먼

저 구성해서 저희 지원해 주세요라고 해야 주는 거죠.

E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아웃라인을 알려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인회를 만들 수 있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G

저희가 김밥을 하면서 중간중간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을 했어요. 한번은 저희가 장수사진을 찍는 걸 진행했었어요. 어떤 어르신의 장수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이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쁘게 영정사진으로 쓸 수 있었다고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저를 붙잡고 우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밴드에 가입돼있는 어떤 분이 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영정 사진이 슬픈 사진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진인지 몰랐습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면서 그 분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봉사단체랑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궤동, 남천동 어르신들 사진 찍어드리고, 만들기 하는 거.

E

그거 좀 알고 싶네요. 상인회를 구성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기 궤동에서 상인회 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G

철북센터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 김밥 싸는 무료 수업을 나가고 있어요 거기는 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인지 놀이 레크레이션하고 요리 수업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업하는데 남자 장애인 한 분이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신났어요? 그랬더니, 난 맨날 누군가가 지원해줘서 얻어먹었는데 이제 이거 누구 줄 수 있어하면서 신이 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전경희

그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돼. 본 적은 있는데 싸본 적이 없으니까 해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인지에 도움이 되겠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게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도 좋고.

G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들 수업하는데 혼자 나와서 앉아 있어. 그 자체로도 항상 제가 용기를 줘요. 나와서 잘했다, 너무 예쁘다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던 친구인데 그날 갑자기 선생님하고 불러요. 목소리 너무 예쁜데 왜 안 들려줬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릇 하나 더 줘요. 내가 속으로 많이 먹으려고 그러나 싫은데 말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선물 주게요 했더니, 맨날 엄마가 나만 줬는데 엄마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경희

궤동에서도 그 수업을 하자고. 우리가 만들어서.

E

대학생들이 자취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희망을 품고 부모를 꼬드겨서 부동산에 데리고 와. 여기 와서 열심히 살겠다고. 근데 여름방학 되기 전에 그냥 다들 가. 외로워서 못 살겠대. 학생들은 그냥 다 가버려.

전경희

범죄나 그런 건 예전 일이지. 바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 많은 곳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처럼,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테이블마다 뽀뽀이 앉아 있으니까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난 거고, 지금은 다들 사이좋아요.

E

타지에서 꺾동이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봤어요?' 그랬어.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오산대 대학생들은 멀리 인천에서도 그냥 차 타고 다니겠대. 그 정도로 외로워해요. 그만큼 여기 오산이 완전히 놀 게 없어요. 오산역에 있는 문화의 거리, 그게 무슨 문화의 거리야. 오산이 교통만 편하고 상권이 없어요.

G

봉사단 할 때 가끔 정치인들이 와요. 도의원도 한 번 오셨는데, 조끼 벗으시면 저희랑 봉사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옷을 벗고 봉사에 참여했어요. 옷 벗고서도 계속 오는 시의원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희 처음 출발할 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도 오세요. 지난번에 저희 회원들과 밥도 같이 드시고.

E

진짜 시를 이해한다면 어디든지 가서 가게가 왜 비었는지도 부동산도 둘러보고 해야되는데 솔직히 한 번도 못 봤어. 이거 문제예요. 파출소 있는 데가 구꺾동, 여가기 나중에 개발됐으니까 신꺾동이라고 불러요.

G

위에 아파트 있는 신도시, 거기가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이사 간 곳이 그쪽 죽담로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다시 일로 와요

E

저쪽이 활성화되기까지 한 10년은 걸려요. 그래서 여기 꺾동 상권은 활성화를 해주면 더 살아요. 그리고 여기가 상업 지역이잖아요. 왜 활성화를 안 해주냐고. 여기는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여기를 활성화 해줘야 돼.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논다고. 여기가 보면 1층이 다 상가잖아요. 먹거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꺾리사를 개방을 해서 사람들이 관광도 오고 해서 여기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가운데 향아리 상권이라 너무 좋아요. 살리기가 너무 좋은 위치에요. 꺾리사를 주축으로 여기를 살리면 돼. 꺾리사 하면 다 알잖아요. 여기에 먹거리도 있고. 축제까지 만들면 이 거리를 살릴 수 있죠. 10년 동안 이 동네는 변화가 하나도 안 되고,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G

저희가 김밥을 팔기 시작한 게, 여기에 무료 급식소가 없어요. 오산시에 있던 것도 문 닫았고. 어르신들 식사 한 끼 편안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지만, 공간이 없어서 들고 가서 드실 수 있는 걸로 하다 보니 김밥이 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국수나 뜨끈한 밥을 해드리는 무료 급식소를 차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밥으로 하고 있는데, 봉사회원들이 지금 많아져서 저희가 매주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지원비가 좀 필요하죠. 지원비가 없으니까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E

주차 이야기는 꼭 해야해요. 이 상권이 죽는 원인이 뭔지 알아요, 유동성이 없어서 그래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앞 도로에 잠깐 주차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어요. 시간을 딱 정해갖고.

G

저희는 학교 앞이라 불법 주차 벌금이 2배예요. 일정한 시간대에 좀 유동성 있게 해달라. 저희 가게에 오는 외국인들이 나라별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희는 메뉴가 매일 바뀌는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생선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선을 사러 오고, 또 어느 나라 사람들은 젓갈 종류를 좋아하고 나라마다 좋아하는 게 달라요.

E

외국분들이 부동산에 올 때는 대화를 알아서 해 갖고 오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바꿔줘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 지 몰라요. 혹시 비싼 데로 해 줄까 봐 걱정하고. 이분들이 의심도 많고 각쟁이고 더 잘 알아요. 한국분보다 외국인이 더 많죠. 한국말을 여기서 들으려면 힘들어. 그리고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보면 중국분들이예요. 그리고 조선족들은 한국 족보가 남아 있으면 무조건 귀화가 돼요. 시험 안 봐도.

G

근데 중국에서 뭔가 했던 사람들은 연금이 거기도 꽤 좋대요. 그런 분들은 귀화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게에는 수원 동탄에서도 손님들이 와요. 부부랑 자녀들이 있는 4인 가족도 밥을 혼자서 먹는거야. 와이프 혼자 먹는다든지. 왜냐하면 남편은 회사에서 아이들은 배민에서 이렇게 되니까 혼자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1인 가구 식으로 반찬을 사가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이 많이 오세요. 특히 남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셨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사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며느리가 반찬을 해다 주면서도 뭐라고 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눈치 안 봐도 된다고.

E

며느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갖고 오면 어떡하냐고, 노인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가져 와야지.

G

그리고 나이 있으신 어머님들도 오시는데, 그분들은 부끄러워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왜 부끄러워하세요, 이게 능력 있는 거지, 여가 생활하시고. 친구들이 부러워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르신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매일같이 오셨어요. 숨도 할딱거리시면서. 건강했는데 점점 안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오기 시작해. 그런데 고독사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E

며칠 전에 우리가 관리하던 곳에 고독사가 있었어요. 회사라고 하면서 급하게 비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니까 경찰을 일단 불러서 비번을 알려줬어요. 나도 막 뛰어갔더니 벌써 죽었다고 그러더라

고. 자살을 한 건지, 혼자 있다 보니까 그냥 죽은 거 같아. 회사에서도 겁이 나니까 온 거야. 집안이 뭐 엉망진창이지.

G

돌아가신 어르신은 깔끔하셨어요. 건물도 있는 분이셨고. 깔끔하셨어. 그리고 강아지 하나를 키우셨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산에 혼자 있어, 누가 안 키워서. 아침에 산에 운동가면 가끔 만나요. 불쌍해서 간식을 줌 갖다 주고 했는데, 그걸 못 주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기견 센터에 연락해도 그 강아지를 못 잡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똑똑한지 유기견센터에서도 못 잡아요. 나오지를 앓으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뒷산이 너무 넓게 있으니까.

E

여기는 보통 한 동에 가구가 20개씩 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냥 중개만 하고 관리 안 해요. 자꾸 해달래도 나는 이제 안 해. 3동만 해도 벌써 50가구가 넘는단 말이에요. 요즘 공실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웃소싱, 인력 회사에서 한꺼번에 방을 많이 얻었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는 거죠. 인력 소개업소에서 방을 구해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일단 숙소로 제공을 하는 거죠. 외국인도 있고 중국 사람들도 있고 다양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집이 거지 같으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좋은 것부터 먼저 보여줘요. 지금은 아웃소싱이 빠지니까 집이 왕창 빠져갖고 어떤 데는 대여섯 개가 비어 있어요. 채워지긴 하겠지. 근데 여름이니까 두고 보는 거죠. 이 동네 가격이 보통 30만원, 거기에 인터넷 와이파이까지 포함돼 있으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보통 35~40만원을 받았던 건데, 지금은 30만 원을 해도 안 들어가. 또 지하는 아예 안 봐요, 싸게 줘도. 사람들 눈이 높아졌으니까.

보통 거주하는 기간은 최하 3개월, 6개월, 1년. 1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증금이 적으니까 한 달만 안 내도 튕겨 나가죠. 3개월, 6개월 지내고 잘 낼 것 같으면 그냥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오래 살면 잘 내요. 저는 부동산만 20년 했는데, 미군 부대 있는 안정에서 렌탈 하우스도 하고 여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왔는데, 아주 재미없는 동네더라고. 보통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면 실장님하고 같이 집으로 가요. 고독사 했을까봐. 한번은 월세를 받으러 갔더니 애가 하얗게 다 죽어가고 있어. 보니까 애가 밥도 못 먹고. 아무 의욕이 없으니까 굶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집구석은 엉망진창인 거야. 옛날에 아빠한테 학대받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복지관하고 연결해 줬는데, 지금은 애가 너무 잘 됐어. 얼굴도 엄청 잘 생겼더라.

G

그 아들이 반찬 가지러 우리 가게에 왔었어요. 그 친구가 와서도 반찬을 고르라고 하는데 미안해서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갖고 오면 제가 대여섯 개를 더 갖고 와서 남는 거라고 하면서 주고 했었던 거든. 그 아들이 이제 취업해서 아이스크림을 이만큼 사가지고 왔잖아요.

E

어머 그렇게 애가 밝고 좋은 앤데. 개가 너무 잘 됐어. 아주 완전히 180도 변했어. 글도 잘 쓰고요. 시를 신문에 냈다고 하더라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 여기 중국 애 하나도 복지관에 연결 해줬는데, 개는 딴 데 가더니 연락이 없어.

G

우리 봉사단에 중국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네일샵을 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어르신들 네일을 밖에서 다 해드려요. 할머니들이 줄 서 있어요. 그친구 부모님들이 먼저 넘어왔어. 그리고 이 친구가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에 왔죠. 그 친구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이 근처에서 네일샵을 해요.

E

여기 장사하는 사람은 중국인들이 더 많아요. 여기 바로 옆에 광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바자회같은 거 하면서 건강검진도 해주고. 광성교회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해요. 광성교회 목사님 인터뷰하면 아마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동네 지도하고 걸레를 하나씩 넣어서 우리 가게에 주고는 사람들이 방을 얻으러 오면 주라고 그런 일도 하세요. 저번에 떨어졌다니까 또 갖고 왔어요. 교회 홍보도 되고 동네 안내도 하면서 많이 활동을 하세요.

G

너무 아쉬웠던 게 복지관 분소라도 이쪽에 들어오길 바랐는데, 칠복센터도 저쪽에 생겼잖아요. 지금 양쪽에는 다 있는데, 가운데만 인구는 많은데 아무런 게 없어요. 여기 꿈빛나래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데 솔직히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E

여기가 원룸 단지라서 그럴 것 같아. 아파트에 세대주로 있는 사람들, 좋게 얘기하면 주민세 내는 사람들 위주로 법을 활성화시키니까. 여기 사람들은 그냥 가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냥 깎두기 신세야. 그렇지만 여기를 살려야만 아파트쪽까지 활성화가 돼.

특히 이슬람교는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요. 기도를 해야하니까. 그리고 중국 애들도 보면 자기네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저기 건너편 건물 위층에 보면 활동실이라고 써있죠. 활동실은 중국인 노인들이 마작하는 곳. 켈리사나 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둘레길도 만들고 켈리사도 개방하고. 여기가 발전이 너무 없어. 완전히 깎두기 신세야.

G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봉사자들이 오거든요. 청소년들이 와서 어르신들 섬기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봉사 섬기는 거를 부모하고 같이 하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저희가 엄마는 봉사에 같이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같이 오면 잔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만 와서 지역을 청소해요. 근데 아이들이 다리가 없는 분이나 혼자 사는 그런 환경을 직접 보진 못했잖아요.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나 다리 없는 아저씨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 눈물이 울컥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한테 아이가 진짜 봉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지역 안에서 청소를 하면 처음에는 누가 이걸 버렸어 이러다가 아빠한테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뭘 나눠드릴 때 처음엔 애들이 쭈뼛쭈뼛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 다음 달에 또 오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입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되는구나, 감동을 얻고 보람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재능 기부를 하게 했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댄스하는 애, 태권도를 잘하는 애, 줄넘기를 하는 애. 그래서 아이들이 공연하는 마을 행사를 한 번 했었어요. 저희가 어르신들 200분 모시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E

저희 가게에 의자가 많아서 바깥에 몇 개 가져다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열심히 앉아요.

G

이 동네 외국인 상담 원하신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부탁할게요.

E

어르신 독거노인 문제는 교회에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여기 교회 다니는 독거 어르신들이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많이 아시겠죠.

E

하여튼 주차가 1순위예요. 그거 꼭 얘기해 줘요.

G

전에 여기서 빛축제 했었는데, 그런 것도 괜찮았어요. 아이들이 그때 공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상인들한테 직접 혜택이 안 가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지 이러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점점 없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제때 예뻐요, 우산도 걸어놓고.

E

예쁘게 네온사인같은 걸로 좀 환하게 하면 좋겠어요. 여기가 밤 10시면 사람이 없어요. 시청을 예쁘게 가꾸고 도로 옆 나무에 예쁜 네온사인같은 거 해놓으니까 전체가 다 살았어요. 전체 블록이 다 살았다고. 거기 장사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다 살았어. 재래시장부터 해서 여기를 지나 아파트로 가는 길로 연결되도록 하면 좋겠어요.

3) <궐동 1인 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 지역조사 FGI #3_궐동 이주 외국인

일정	2025년 7월 23일 (수) 13:00~15:00
장소	오산 종합사회복지관 2층
시간	2시간
참여자	<p>H (여, 41세, 중국 국적, 한국 영주권) 중국 흑룡강 출신, 조선족, 2021년 한국 이주 궐동에서 '00네일'(네일샵) 운영(2년째), 남편(조선족)·딸과 궐동 빌라 거주</p> <p>I (여, 39세, 한국·베트남 이중국적) 베트남 깐터 출신, 결혼이주민, 2006년 한국 이주 제조업체 근무 및 베트남어 통역 프리랜서, 남편(한국)·3자녀와 궐동 아파트 거주</p> <p>J (여, 51세, 한국 국적) 중국 길림성 출신, 한족, 2005년 한국 이주 궐동에서 '허니하우스'(중국 식료품점)+'마이요거트립'(아이스크림가게) 운영(2년), 남편(한국)·2자녀와 궐동 아파트 거주</p>

질문

한국에는 언제 어떻게 오게 됐나요?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나요?
 궐동에 언제 어떻게 오게 됐나요?
 궐동은 어떤 점이 좋고 나쁜가요?
 한국인들과 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요즘 궐동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변화가 느껴지나요?
 궐동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Q. 한국에는 언제 어떻게 오게 됐나요? 한국에 와서 어떤 일을 했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나요? 귀동에 언제 어떻게 오게 됐나요?

H

저는 H라고 하고요. 귀동에서 '00네일'이란 네일숍을 하고 있어요. 만나 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족이고, 고향은 흑룡강입니다. 연변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릴 때 거기에서 많이 생활했어요. 한국에 2021년 8월 3일에 왔고요. 이제 곧 4년째 되어요.

I

저는 베트남에서 온 I입니다. 베트남 이름은 '투이띠엔'이에요. 개인적으로 베트남어랑 한국어 통역하고 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치고, 자격증 조금씩 따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보충하면서 하고 있어요.

J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지금 귀동에서 중국 식료품 가게랑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가게를 같이 하고 있고요. 2년 됐어요. 이름은 '허니하우스', '마이요거트립'. 식료품점에서는 보통 중국 사람들 간식이나 빵, 소주 같은 거 팔아요. 저희 가게는 등기소 맞은편, 파리바게트 사거리 거기에 있어요. 오산대 후문에서 나오면 사거리 CU 옆에 있어요. 상권은 좋아요.

H

제가 한국말을 어릴 때 배우긴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홍콩 옆에 있는 광저우 심천에서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본어랑 중국어 통역사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에서 일본을 전공했어요. 근데, 일본 말은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이제 조금 생소하고, 중국어도 서서히 그렇고. 지금은 한국어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I

제 고향은 호찌민에서, 인천에서 오산정도 거리에 있는 건너 지역입니다. 두리안, 망고, 리치 이런 과일이 많이 나요.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다음에 호찌민에서 5년 정도 백화점에서 샤넬 향수 파는 영업판매원 했어요. 그러다 한국에 시집오면서 들어왔습니다. 입국 날짜가 2006년 1월 28일이에요. 제가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깥에 눈이 왔어요. 제 고향이 더운 열대 지역이라 눈이 없어요.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한국 분에게 '한국 올 때 첫눈을 보면 행운이 온다'고 들었어요. 복이 온다고.

J

고향은 길림성(지린성) 미아고시예요. 저는 한족이에요. 한국 오기 전에 중국에서 옷 만드는 회사에서 미싱 했었고, 2005년 8월에 회사 일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이제 20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한국말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모르는 거 많아서 좀 무서워요. 오늘도 조금 떨려요. 어제 잠 못 잤어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예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착하고, 저한테 참 잘해줬어요. 그때 저는 한국어 조금 알고, 우리 남편은 한자로, 여기 한자 우리 중국 한자랑 비슷해요, 모르는 거는 쓰면서 이야기했는데 좀 갑갑했어요. 2005년 10월 17일에 결혼했어요. 아이가 아기였을 때는 청소 일도 하고, 우리은행에서 통역하는 거 좀 하고, 행정사무실에서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등록증 같은 거 만드는 일 하고. 나중에는 회사도 들어갔고요. 전자 회사에서 많이 했어요.

한국 와서 계속 오산시에 살았어요. 처음에는 갈곶동 우림 아파트에서 살다가, 오산 가수동 늘푸른오스카빌에서 살다가, 지금 세교동이에요.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아기 낳고. 아이들은 다 컸어요. 고2하고 대학교. 한국 살면서 고향에 두 번 갔어요. 중간에 부모님이 왔었고. 지금은 한국에 오래 살아서 중국 가면 좀 불편해요.

I

저는 한국 입국 날부터 2년 정도 안산역 앞 원곡동에서 살았어요. 그때도 거기는 이주민이 많았어요. 안산 다문화센터에서 2년 동안 한국어 공부하다가, 외국인 인력 상담센터에 취직하게 됐어요. 제가 한국 입국 때는 한국말을 아예 못 했어요. 베트남에 한국어 센터나 학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다문화센터 다니면서 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외국인 인력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한국어 배우고 시험도 치고. 자격증이 있어야 거기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센터 선생님이 많이 도와줬어요.

처음에 남편하고 말 못 하니깐 표현해야 되는 거 손으로 하고, 아니면 너무 어려울 때는 책 가져다가 내가 뭐 하고 싶다 알려주고. 제가 말할 때 지금도 막 손짓하잖아요, 습관이 됐어요. 아직도 대화할 때 지장이 있어요. 통역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분들이랑 접근 많이 해서 한국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 인력 상담센터에서는 취업 비자로 일하러 오는 근로자분들 애로사항 들어주거나, 사업주랑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서 통역해 주고, 법도 통역해 주고. 주로 베트남어랑 한국어랑 통역했어요. 그다음에 시흥 고용센터에서 E9, E7 비자로 온 베트남분들한테 통역해 주고. 그다음에 시흥 예진산부인과에서 통역하는 일을 했어요. 다문화 가정, 저희처럼 한국 신랑, 베트남 신부가 아기를 임신하거나 낳을 때 산부인과 가잖아요. 진료받을 때, 아기 분만할 때 제가 통역하고 신생아 태어나면 케어하고. 거기서 3년인가 4년 했어요. 안산에서 시흥까지 거리도 얼마 안 걸려서 통근했어요.

저희 신랑 회사가 오산에 있어서 매일 안산에서 출퇴근하는 게 힘들었어요. 아침에 차 막히면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신랑 따라서 오산에 2015년 8월 30일에 왔어요. 신장동 주민센터 앞에 물향기 수목원 있잖아요. 거기 살았어요. 근데 그때 아기가 생겨가지고, 통역 일은 부르면 바로 가야 하잖아요. 여건이 그래서 제가 평택 쪽에 있는 (주)화인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처음에는 생산직에서 일하다가, 창고 관리자로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창고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생산직 일하러 취직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베트남 근로자분이 많아요. 베트남 친구들이 한국말 잘 못 해서 회사에서 계약서나 연말 정산, 그리고 애로사항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통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리자들이 저를 제품 창고 쪽으로 부서이동을 시켜줬어요. 영업 쪽 고객한테 제품 전달을 나가야 되고 컴퓨터도 좀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맡으면 좋겠다고.

저희는 다자녀 가정, 3명. 큰 애는 매월고 2학년, 둘째가 초3, 셋째가 초1, 세담초 다녀요. 첫째랑 둘째가 8년 정도 차이가 나요.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해서 틈이 좀 있어요. 셋째는 사고 쳐서. 아이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욕심내려고요. 회사는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해요. 그래서 저녁이랑 주말, 아니면 너무 급한 거 있으면 연차 끼우고 하면서 통역 일을 해요. 번역도 합니다. 주로 오산 다문화센터랑 연결해서 일해요.

H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저희 가족(부모님과 형제)은 다 한국에 있었는데, 저만 중국 광저우에 있었어요. 광저우에서 전에는 캐논이랑 다른 카메라 회사에 다녀요. 근데 카메라는 점점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회사를 다녀야겠다 하던 찰나에 혼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12년 9개월을 꼭 그 회사에서만 통역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제일 심해져서 격리 들어가고, 1차, 2차 예방접종 맞을 때였어요. 제 동생이 수원 광교에서 미용실을 하는데, '언니 더 늦기 전에 기술 배워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나는 여태껏 통역밖에 한 게 없는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어린애가 있거든요. 통역을 하게 되면 아기를 돌볼 수 없어서 아기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제 동생이 네일아트에 도전해 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해보면 되겠지 하고 입국을 했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아쉬운 건 없었어요.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 보자 하고 한국행을 하게 됐어요.

아기랑 제가 먼저 와서 서울에 있는 엄마네 집에서 14일 자가격리 끝내고, 동생이 미용하는 수원으로 갔어요. 수원에 네일아트 학원이 집중되어있어요. 동생이랑 면담하고, 학원을 정해서 바로 자격증 따기 위한 수

업을 들었어요. 중간에 코로나 접촉자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엄청 어렵게 수업을 듣고 자격증을 땀어요. 그리고 반년 뒤에 신랑이 한국에 나오고, 궤동에 지인들이 계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쪽 회사 직원으로 전 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궤동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궤동 산 지 3년 반쯤 됐어요.

그때 아기가 어린이집 다녔는데, 진짜 고마운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아기를 돌보면서 수원 인계동 쪽으로, 차가 없으니까 202번 버스 타고 1시간씩, 네일샵 직원으로 다녔어요. 아침 6시쯤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아기 거 준비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근데 어린이집이 밤에는 안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태권도 학원 관 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밤 9시까지 우리 아기가 거기에서 안전하게 4시간 정도 더 있었어요. 제가 일이 끝날 때쯤이면 픽업하는 관장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 주셔서 '지금 출발해도 될까요?', 이렇게 저랑 시 간을 맞춰주셨어요. 인계동에서 일이 끝나서 여기 오면 9시 반이 넘어요. 주변에 한국 언니들이 꽤 많았는데, 아기 재우고 그 언니들을 불러요. 현지에 적응하려면 현지 분들이랑 많이 어울려야겠다 싶어서. 그때는 제 가 주말 부부여서 그 언니들이랑 11시, 12시까지 대화하면서 네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빨리 익힐 수 있었 어요. 일반인보다 조금 빨리 자격증을 따고, 가까운 데서 일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나이가 많다고 다 안 써주더라고요. 외국인은 아기 교육비가 100% 저희 부담이어서 부담이 커요. 그래서 식당 아르바이트하면서 아기 어린이집 보내고, 병설 어린이집 대기 나와서 바로 그쪽으로 옮기고, 어찌저찌해서 학교 운영위에 참 석하게 되고, 지효²⁾ 언니 만나서 같이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효 언니가 이번에 노년 인지놀이활 동 지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런 봉사도 같이 나갈 예정이에요.

저희 가족(부모님, 형제)은 저 빼고는 다 한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저희 신랑은 F4 외국인 동포. 저는 엄 마가 한국 국적이어서 저도 한국 국적을 딸 수 있는데, 면접도 보고 뭐도 해야 되고 중국에 이것저것 상 황이 있어서 바로 국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주권을 따고, 신랑은 차츰차츰 준비 중 이에요. 아기는 F2 비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올 때 동반 비자 비슷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뒤 일은 모르겠지만, 저희 아기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니 지금으로서는 중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적응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다가 중국에 가면 학교를 따라가지 못해요. 여기서 대학교까지 가면 좋겠지만, 애가 공 부에 대한 흥미를 못 느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여기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기는 자기 마음대 로 선택하고, 저는 아기 크는 동안에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랑 동생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I

저는 이중국적이예요. 한국이랑 베트남. 저희 아기들 3명 국적은 다 한국, 아빠는 한국인. 제가 2006년에 한국에 왔고, 2009년 11월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제가 한국 온 첫날에 눈 봤었잖아요. 운이 좋았어 요. 그때 귀화할 때는 면접 없었고 다 면제였어요. 서류 내고, 오라는 날에 가서 애국가 1절 부르고 됐어 요. 전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면 국적 따기가 좀 더 쉬웠는데, 요즘은 조건도 많이 따지고 바뀌었죠. 시 험도 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주변 베트남 이주여성들 보면 10명 중에 6~7명 정도가 국적을 따요. 본인이 국적 취득하고 싶어도 여건 안 되거나, 시험 볼 때 떨어질 수 있어요. 재산도 따지고, 신랑 직업이 있는지, 애가 있는지, 그리고 면접도 봐요. 회사에 취직하려면 면접 보잖아요. 똑같아요.

J

저는 2008년 한국 국적 땀어요. 그때는 애국가 안 불렀어요. 면접 같은 거도 없었어요. 그냥 신청하면 됐 어요. 우리 남편이 신청서 쓰고. 신청할 때 아기가 두 명이었는데, 둘이 16개월 차이예요. 근데 작은 아기

2) 지효 씨(여, 50세, 00 반찬가게 대표, 9년째 운영)는 '지역조사 FGI #2_궤동 상인'에 참여했다. H 씨는 G 씨와 함께 궤동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G 씨는 "우리 봉사단에 중국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네일샵을 해요. 여름이고 겨울 이고 어르신들 네일을 밖에서 다 해드려요. 할머니들이 줄 서 있어요. 그 친구 부모님들이 먼저 넘어왔어. 그리고 이 친구가 맨 마지 막에 우리나라에 왔죠. 그 친구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서 이 근처에서 네일샵을 해요."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중국 친구'가 H 씨 다.

는 자고, 큰 아기는 기분 안 좋아서 차에 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혼자 올라가서 신청했어요. 그때는 더 쉬웠어요. 근데 중국 국적 포기할 때는 내가 갔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중국은 이중국적 안돼요.

I

제가 한국 국적 취득할 때는 이중국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이 나오게 됐는데, 절차나 이런 거는 전혀 몰랐어요.

J

궁동에 중국 사람이랑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는 한국말을 잘 못 하니까 여기를 차이나타운으로 생각하고 선택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은 90% 이상이 다 중국 사람, 그리고 궁동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데, 한국 사람이 많이 시켜요. 저희 가게는 11시부터 11시까지 해요.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문 닫고요. 오늘도 가게 문 닫고 왔어요.

I

2015년에 오산 신장동으로 왔을 때, 저희가 집이 없었어요. 근데 다문화센터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다문화 가정에 거주비 지원해 주는 거 신청하고, 신장동 다가구주택 임대해줘 가지고 2022년까지 있다가, 아이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3명이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큰 집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2022년 궁동 호반써밋라센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어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2024년 4월에 궁동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궁동에서 지금까지 1년 3개월 정도 사는데 조용해서 좋아요. 지금 이 아파트에는 외국 사람이 없어요. 제가 신장동에 살았을 때는 중국분 많았어요. 궁동에는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자가 더 많고요. 궁동 살아보니까 좋아요. 아직까지는 조용한데 앞으로 세교 2지구에 아파트 많이 올라가면 앞으로도 조용할지 걱정돼요. 더 많이 생기면 좀 북적하지 않을까 싶어요.

궁리사나 등기소 있는 그쪽에도 자주 갑니다. 산책도 하고 거기에 중국 가게가 많이 있잖아요. 음식점보다는 마트에 자주 가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이어서 중국 이랑 문화도 알려주고. 거기 베트남 식당도 있고 마트도 있어요. 저희 문화를 좀 알려주려고 많이 가요. 궁동, 그런 점이 좋아요.

H

전기 쪽 일하는 분들이 궁동에 집중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인분이 거기에 있어서 신랑을 소개해서 오게 되었고, 쪽 여기 살다 보니 이제 편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법원 근처에 있어요. 아기 위주로 학교, 집, 가게가 모두 5분 거리. 저는 궁동 살면서 딱히 나쁘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 사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쁘면 선을 그으면 되고, 좋으면 같이 좋은 에너지를 받고. 지효 언니는 진짜 작은 거인이니까, 그런 분들과 많이 어울리고 좋은 영향 받고.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배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베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일샵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부담이 돼서 작은 데서 하자 했는데, 동생이 보더니 햇빛도 안 들어와서 곰팡이가 날 것 같고, 주차도 안 되고, 이걸 아닌 것 같다해서, 2순위로 찜해둔 데를 가봤는데 거기가 좀 커요. 임대료는 부담은 되지만 통풍이 잘되고 지역아동센터랑 진짜 1분 거리예요. 그래서 아기가 사적인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가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어요. 가게가 혼자 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여기가 나의 소통공간이니 공간 활용을 잘하자 생각해요. 저는 열심히 하는 편이어서 9시부터 11시, 12시까지 해요. 9시에 퇴근하고 오는 분들 하다 보면 11시, 12시예요. 쉬는 날도 따로 없어요. 내가 만약에 봉사를 간다 하면 그 시간에는 외출하지만, 일단 가게 오픈은 해요. '00네일' 이름은 우리 딸내미가 지었어요.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니까, 우리 예민이가 '엄마 나는 엄마한테 네일 받고 간 사람들이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스마일, 미소.

Q. 궐동은 어떤 점이 좋고 나쁜가요? 한국인들과 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J

저는 처음에 만들고 나서, 우리 큰딸 친구들이 '너희 엄마 왜 무서운 동네에 내게 해', 이렇게 말해서 한국 아기들이 궐동을 무서운 동네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2년 하는 동안 싸우는 모습 좀 봤어요. 저희 주변에서 회식 같은 모임 하고 술 많이 먹는 사람 많아요. 우리 가 늦게 문을 닫으니까 술 많이 먹은 사람이 들어와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혼자 에 있으니까, 에서 안 나가는 사람 있으면 우리 남편 불러서 택시 태워 보내기도 해요. 근데, 우리 큰딸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무서운 동네라는 생각은 안 나오. 오래 살다 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궐동에 제 친구들이 있는데, 다 괜찮다고 해서 냈어요. 크게 문제는 없어요.

H

궐동에 살아보니까, 나쁜 거는 주차 문제. 저는 차가 없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다들 힘들어해요. 저는 운이 좋은 게 앞에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데, 이 언니(J)네 같은 경우는 주차 자리가 아예 없어요.

제가 옆에 텃밭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텃밭에 투기한 것 같아요. 한두 번이면 제가 치울 수는 있는데,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치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시청에 쓰레기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현수막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그랬어요.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드시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고, 싸움까지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밤에는 잘 안 다니다 보니. 폭력 사건 이런 거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I

궐동 이쪽에는 낮에만 가니까, 문제 있는 건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성범죄자들 있잖아요, 그걸 핸드폰 알람으로 계속 알려줘요. 자주 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걱정이 돼요. 저희 아이가 아직 작은 여자아이여서. 엄마 아빠가 다 직장에 다니니까 계속 아이들 옆에 딱 붙어서 챙겨줄 수도 없고. 나쁜 일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쪽이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술도 먹고,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그쪽으로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거의 저녁에는 안 가고, 가족끼리 외식 정도.

H

월세가 저렴하고 보증금 없이도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궐동에 거주하는 거 같아요. 저는 지금 빌라 사는데 빌라가 너무 뻑뻑하다 보니까 창문이 사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습하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 딸한테 '엄마는 사이즈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방에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건이 된다면 햇빛이 있는 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파트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지역은 상관없어요. 빌라라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예민한 게 학교. 아기들 학교에서 '너네 엄마 뭐 하니, 아빠 무슨 차 타니', 이런 게 많이 들려요. 그리고 한번은 학교에서 폭력으로 문제가 된 아이들 안전을 처리하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학생들이 외국인인가요', 하니까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중국인들은 협조를 잘하고, 엄마들이 예의 있고, 뭐 하면 다 잘해 준대요. 저희 학교는 대화초등학교인데, 선생님들이 '너는 외국인이니까'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대해줘요. 한 반에 25명 정도 있어요. 3학년은 5학급이고, 그 위에는 다 4학급이에요. 아이들은 베트남, 러시아, 중국이 대다수. 중국인은 오산 시장 쪽에 제일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교도 만만치 않아요. 거의 50% 이상이 중국인이 아닐까 싶어요. 반마다 다르긴 한데, 요즘 보니까 중도 입국 애

들을 위해 선생님을 투입해서 교육하는 시스템도 하고 있어요. 중도 입국자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으면 다른 선생님을 투입해요. 메인 선생님은 수업을 하시고, 서브 선생님은 따로 지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교장 선생님 마인드가 대단히 좋아서, 선생님들이 뭐 하자고 하면 일단 해봐라. 이러는 편이에요. 저는 그분이 임기 마치고 다른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 4년 임기 동안은 매우 만족이에요. 너무 좋으세요.

I

저희 아이들 3명 거의 다 반에서 혼자 외국인이에요. 큰 애는 컸으니까 걱정 안 해요. 둘째, 셋째는 지금 아파트 사니까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집에서 아이랑 저랑 얘기할 때 베트남 말로 얘기하니까, 아이 친구들이 '너네 엄마 뭐래', 이러면 '베트남 말 하지' 그래요. 친구들이 궁금해 해서 아이들이 가끔 베트남 말을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우리 아이들은 베트남말을 하긴 하는데, 문장을 유창하고 매끄럽게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듣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남편은 베트남말을 전혀 못 해요. 큰애가 어릴 때부터 베트남어 온라인 수업도 받고 그랬는데, 중학생 때 베트남어 그만 배우고 싶은데 굳이 해야겠냐고 해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세 명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H

저희 아기는 원래 중국어밖에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차츰차츰 중국어를 놓기 시작해서 이제 중국어는 거의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만 해요. 애는 오리지널 한국어를 배워서 저희 가족 중에 한국어를 제일 잘해요. 아기가 일단 한국어를 먼저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중국어를 차츰차츰 가르칠 예정이에요. 남편도 한국말로 소통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J

아이가 처음 학교 들어갈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동네는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외국인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큰애는 그것 때문에 아침에 '나 학교 안 가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강제로 며칠 보내고, 그다음 날부터는 아기 동네 친구들, 큰딸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것 주고, 그렇게 친구들 많이 생겼어요. 그다음 날은 친구랑 약속해서 학교에 같이 보내고.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딸이 엄마가 중국 사람이라고 자랑해요. 우리 아기는 중국 말 듣기만 해서, 대화하면 중국말 듣는 것만 하고 말이 안 나와. 그래서 한국말로 대답해요. 중국말은 아예 안 나와.

작은딸은 지금 매홀고에 다니는데, 짝궁 남자애도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 아기는 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시험 볼 때, 경쟁하는 것처럼 서로 꼭 이겨야 돼요. 그 아기는 97점, 98점 받았는데, 우리 딸은 백점 받았어요. 경쟁이 붙는다는 게 되게 커요.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 괜찮아요.

H

저는 한국 살면서 느꼈던 게, 텃세.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많이 배려하고. 그런데 50대 넘어가는 분들 중에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이런 게 많더라고요. 언니 손님들, 특히 공장 다니는 분들은 텃세가 세다고 그래요. 저희 옆에는 좋은 사장님이 계셔서 항상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옆 미용실 언니도 되게 좋아요.

제가 사는 빌라에 중국인들도 꽤 많아요. 근데 빌라에 사는 한국 사람들하고 갈등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윗집이 엄청 부지런한 분인가 봐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늘 뭔가를 하세요. 저는 예민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저희 신랑은 잠을 잘 못 자요. 주말에 쉬고 싶은데, 층간 소음이 있어서. 최근 저희 빌라에 정신이 좀 이상한 한국분이 들어오셨는데, 남의 집 문도 뽕뽕 차고 시비 걸고 이래서 너무 무서워요. 저희는 그전까지는 엄청 단합이 잘 됐고, 서로 배려하고 참아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분은 재계약은 안 할 거고, 녹음해서 제출하면 퇴실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저희 아파트에 관리자분이 계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화를 해도 전혀 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분은 바로바로 대응해 주셔서 지금은 행복해요. 공동 관리비³⁾는 계단임에도 불구하고 월 7만 원이에요. 쫄롱 다른 곳도 7~10만 원. 딱히 하는 게 없는데 왜 7만 원을 내야되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I
최근에 원룸 관리비가 10만 원, 12만 원, 이런데도 있어요.

H
많은 데는 14만 원 가는 데도.

I
저는 한국말이 문제예요. 유창하고 매끄럽게 한국분처럼 말 못 하니까. 예전에 아기들 공개 수업에 들어가면 한 반에 23~25명인데 저만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무서워요. 일단은 외모부터 나는 외국인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엄마들한테 접근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말 걸고 친해지고 싶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게다가 이제 아파트 사니까, 다 각자 자기 집에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 집에 들어가고, 서로 만날 수 없어요. 만나는 기회가 없고, 그래서 더 외로워요.

H
아무래도 이쪽은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조금 있는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심각할 수도 있어. 저희는 또래니까 그렇지 않은데, 좀 사는 동네는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어.

I
아이들끼리 노는 거는 문제 없지만, 부모님끼리는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아요. 자신감이 없고. 지금같이 이런 자리에 오면 '내 자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J
저는 지금 사는 아파트는 괜찮아요. 이분 말한 대로 안 맞는 아줌마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을 잘 안하는 편이에요. 위층 아래층에 그냥 인사만 하고. 우리 남편은 인사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가만히 안 있는 사람이에요.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다 알아. 원래 동네는 남편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편이 처음에는 지금 이 아파트가 공사 같은 거 잘 안 돼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런데 여기 산 지 15년 됐어요. 지금은 아기들 친구도 많고. 위층 아래층도 잘 맞아요. 나쁜 사람, 잘 안 맞는 사람 없어요. 계속 여기 살 생각하고요. 이웃집 할머니도 좋고. 위층 아래층 소리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편해요.

H
저는 쫄롱에서 제 를 하면서도, 나돌아다니지 않아서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 경계하고 조심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언니 하면서 편해졌어요. 심리적으로 부담도 덜해진 것 같아요. 이 언니(J)네 예도 물건 사러 자주 갔지만 얼굴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뒤태만 봐도 알 것 같아요.

3) 쫄롱 빌라의 경우 월 임대료를 높이는 걸 우회하는 수단으로 공동 관리비를 높이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

Q. 요즘 궐동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변화가 느껴지나요?

J

가게 만들고 나서 러시아, 베트남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⁴⁾, 그다음에 베트남 사람. 저 뒤에 오산대학교 있어요. 거기 베트남 유학생들 많아요. 베트남 아기가 우리 중국 잘 먹어요, 마라 향 이런 거.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 많아요.

H

중국 애들은 오산대로 유학은 거의 안 와요. 중국 애들이 수업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한국 오면 거의 장학금 받고, 좋은 대학을 많이 선택해요.

저희 가게에 손님이 다양하게 와요, 처음에는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오셨고, 요즘에는 중국분들이 많이 와요. 베트남, 터키, 우즈벡 분들도 오셔요. 저번에 몽골 분들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국어를 엄청 배우려고 하시고. 안 되면 파파고로 하는데,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못 봤어요.

I

궐동에 캄보디아나 태국, 이런 분은 없고 베트남이 좀 많아진 거 같아요. 러시아, 방글라데시 쪽은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궐동 1순위가 중국분. 베트남이랑 중국 가게는 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신장동 쪽에 맨 처음 왔을 때는 신장동 주민센터, 그 옆에 우체국, 그리고 12단지, 13단지, 그것만 있었어요. 다 빈 땅이고, 풀이 사람 머리까지 왔었어요. 최근 4~5년 정도 집이 많이 지어져서 건설업이 자꾸 생기니까 궐동에 사는 베트남 분들이 그거 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 보증금 1년 치 내다가, 그다음에 6개월, 그다음에 3개월 보증금 내고, 이제 보증금 없이까지 바뀌는 것 같아요. 건설업 일하다 보면, 현장이 기간이 짧잖아요. 몇 개월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야 되는데, 보증금으로 1년 넣어 주면 나중에 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사장님들이 그렇게 배려해 주고 맞춰주는 것 같아요.

J

제가 출입국 관리소에 있을 때 이슬람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주변에는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언제 어디든지 이렇게 깔고 기도해요. 근데 딱히 불편한 거 없어요.

Q. 궐동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서로 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I

여러 나라 외국인들 모아서 하는 세계 행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안산에 살았을 때, 안산 중앙역 쪽에 매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오산은 없어요. 그리고 오산에는 다문화센터밖에 없어요. 거기서 저희 결혼한 여자만 다닐 수 있어요. 일하는 분들이 한국어 배우고 싶어도 못가요. 안산에는 다문화센터도 있고, 외국인 센터가 따로 있어요. 일하는 외국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궐동에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전통춤이나 운동 같은 각 나라 문화 체험이 궐동에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J

안산이나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행사도 많고 중국 문화나 아니면 다른 나라 문화 활동 하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국에는 공원에서 춤추는 거 있는데, 궐동은 없어요.

4)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문화권 사람을 의미함.

H

신고 들어오지 않을까요? 스피커 음악이 있어야 추는 건데, 아마도 신고 들어올 거예요.

I

한국에서는 공동 장소에서 노래 부르거나 음악 크게 하면 민원 들어가서 조금 불편해요. 그런 거 아니면 동아리 만들어서 할 수 있죠.

H

학교 옆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수다 떠는 정도. 그분들 운동하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혹시 궐동에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노인정 같은 게 있나요?

I

없는 것 같아요.

H

그래서 다 공원에 모여 앉아서 수다 떨다가 저녁 되면 집에 가시고. 아 맞아, 노인정은 한국분들만 가는데 아닌가 싶은데.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 활동실 이런 게 없어요.

I

안산이나 시흥 쪽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마다 그런 공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활동해도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오산에 내려올 때는 다문화센터도 몰랐어요. 조금 지나서 제가 안산에 가서 오산에 갔다고 하니깐 연계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자리가 많이 없어요. 제가 다문화센터 활동 좋아하는데, 오산에 오면서 많이 줄었어요.

이제 제가 베트남 분들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한국어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언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게, 사업주랑 얘기하거나 집 얻을 때 힘들어요. 그래서 센터 같은 거 없어도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사이트나, 일하는 분들 위해서 주말에 수업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주말이나 저녁에 한국어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온라인으로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이나 저녁에 본인 일 끝내고 와서 1시간이라도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아니면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 6시 정도,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J

궐동에 새로 오는 외국 분이 많잖아요. 아기부터 성인까지 한국말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배우는 데가 없어요. 다문화센터는 결혼 비자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H

취업 비자로 들어온 분들은 해고를 당했다 해도 얼마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귀국하지 않아도 돼요. 여행 비자는 일하다 다치면 잡혀갈 수도 있고 바로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E9 비자로 일하러 온 분들은 업체가 바뀌면 사업장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있어요. 여기서 오산이랑 안산이랑 또 비교하게 돼요. 안산에는 임시 시설이 있어요. 단기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는데, 오산은 없어요. 평택에도 없고 화성에도 없어요. 이분들이 거의 3개월 동안 모텔이나 월세 얻어서 살아야 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아파요. 그리고 기타 비자가 있는데, 산재가 나면 어느 때는 출입국에서 허락해 주고 어느 때는 안 해 줘요. 사업주가 증빙 서류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 산재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니면 본인이 너무 힘들니까 포기하고 베트남에 가게 돼요. 도움을 조금 받아서 3개월 버티고, 새로운 곳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J

제가 보니까 작년부터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 많이 다니던 분도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요즘은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가게 와서 일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일터에서 잘린 사람도 많고요. 상황 따라 다르니까 일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I

저희 결혼 이민자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애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없어요. 외국어책도 없어요. 안산 다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작아도 외국어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 다문화 도서관이나 체험 학습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 다자녀라서 매년 근로자 장려금이랑 자녀 장려금이 있었는데, 여기서 받은 적 없어요. 안산에 있을 때 따로 지원이 조금 있었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원금이 4천만 원 이하에 맞춰져 있어서 신청도 별로 저도 별면 그거 못 맞춰요. 저희는 아이가 3명이어서 둘이 안 별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지만 아쉬워요. 자녀가 많으면 좋겠다고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혜택받는 게 없어요. 이번에 다문화센터에서 교육비 지원한 거 말고는 거의 없어요. 다자녀 가정 쪽에 지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보다는 교육적으로 지원하거나 센터 이런 거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H

요즘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광성교회에서 자리를 제공하고 시에서 강사님을 파견해서 그림을 무료로 교육하는 게 있어요. 두 개 반인데 각 20명인지 전체 20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기는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게 엄청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있다면 저희 같은 부유하지 않은 애들도 공부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I

오산 센터에는 프로그램이 많긴 한데 너무 멀어요. 저희 3학년 애가 학교가 2시쯤 끝나요. 3학년은 돌봄프로그램도 없어요. 돌봄은 1학년 작은애만 돼요. 그래서 둘째가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요. 자람센터 같은 것도 있지만, 저희 단지랑 가깝지 않아요. 차량 지원도 안 되고. 근데 엄마 아빠 다 일 나가니까, 제가 센터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센터 선생님이 아이 혼자 오면 걱정된다고 해서 염려하게 됐어요. 센터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어요.

J

만약에 여기에 상인회 같은 게 생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주변 한국 상인들하고 좋아요. 문제 없어요. 좋아요. 세계축제도 찬성. 축제 있으면 당연히 참여하죠.

I

찬성. 저도 동의합니다.

I

네 저도요.

4.2 전문가 자문회의

1)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2025년 8월 20일 (수) 09:00~12:30 09:00~10:00 궐동지역 탐방 / 10:30~12:30 전문가 간담회
장소	오산 칠북센터
시간	2시간 30분
진행	라정민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이사)
참여자 (오산시의원)	1. 전도현 의원 (조국혁신당) 2. 전예슬 의원 (민주당)
참여자 (전문가)	1. 정혜영 (도시재생, 주거환경 분야) 지역입지분석연구소 대표 2. 하경환 (사회복지, 로컬브랜딩 분야) 안양시 만안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 김홍길 (사회적경제, 공공 분야)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 4. 김영일 (공원 및 녹지 조경 분야) 플라워앤가든인피플 대표이사 5. 송주현 (1인 가구 지원 분야) 청년단체 소소 대표 6. 장옥희 (복지 및 지역 협력 분야)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대리

정혜영 (도시재생, 주거환경 분야)

안산은 70년대에 제조를 기반으로 시화 공단 등이 들어서면서 개발이 됐지만, 여기는 개발 사업과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현대판 안산 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적으로는 엄청 어메이징했던 공원 3개. 궐동 규모의 도시 계획이라면 그 정도 사이즈의 공원을 만들지 않는데, 공원이 엄청난 자산이고, 생각보다 너무 좋고, 뭐라도 하겠다 싶어요. 지하도 팔 수 있고. 저는 산을 연결하고 싶었는데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잘 보이지 않고 분묘가 보여서, 산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도현 (오산시의원)

그게 '삼남길'하고 연결이 돼요. 삼남길이 꽤 길니다. 옛날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이 삼남길이에요.

정혜영 (도시재생, 주거환경 분야)

아까 녹지 축 얘기도 하셨는데, 오산대학교가 문을 열면 연결이 좀 되겠다 싶어요. 행정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공공 공간인데, 그중에 제일 좋은 게 선형 공원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에서 1인 가구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 하나가, 봄 되면 텃밭 씨모종 주면서 문 열게 하고 얼굴 한번 보고 씨를 심게 하

고, 이러면서 조금씩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공원은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요소여서 이걸 어떻게 풀까 하는 고민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연구 제목이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로컬 브랜딩', 그리고 '지역재생'으로 나뉘어 보여요. 브랜딩을 할 거면 '이 동네는 괜찮은 동네야'라고 전문가가 들어가서 계속 보도자료 뿌리면서 '여기가 주차는 힘들지만 가면 너무 재미있어', 이렇게 2~3년 축적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1인 가구에 관해 얘기하려면 결국은 삶에 침투하는 주거지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거죠, 아까 답사 때, 복지관이 빨래방에 놓은 3천 원짜리 수첩 하나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보고 참 좋았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고민했다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도시재생 일을 해보니, 관광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서 저는 고민이 됩니다.

저는 궐동의 공원 3개와 궐리사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구 데이터를 몰라서, 중국인이 많이 보인다는 것과 전체 인구의 50%가 중국인이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할지 고민돼요. 그리고 함께 사용할 공간이 필요한데, 공용 주차장이 2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활용해서, 예를 들어 재생 뉴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방법론으로 써보면 좋겠다 싶어요. 우선 목표가 명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아요. 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중국인이 많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인천 같은 차이나타운은 안 되죠. 혼을 느끼고 가는 체험형이어야죠, 짜장면만 먹고 가는 그런 게 아니구요.

이곳에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도시에서 대호초등학교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전체 학생 수가 600명, 제가 사는 인천의 동암은 300명 정도거든요. 그리고 300명 중에 과반수는 다문화 아이들에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학교만 보면 아직 여기는 정주가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그렇다면 주택 쪽으로 얘기를 풀어야 하고, 공유 공간 쪽으로 얘기를 풀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전도현 (오산시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대호초등학교 학생이 6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중 350명이 이쪽 궐동 아이들이 아닙니다. 세교 2지구에 있는 아파트 아이들입니다. 이쪽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150~200명 정도. 청학동이 오산대 옆인데, 거기에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요. 아이들이 30명 정도인데, 21명이 외국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형태예요. 어린이집을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대호초등학교는 지금 증축해야 해요.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없어요.

전예슬 (오산시의원)

대로 하나 건너면 신도시예요. 이게 되게 특이하고 거기 사는 친구들도 어쩔 수 없이 이 학교를 오는 상황인 거예요.

전도현 (오산시의원)

그리고 세교 2 지구는 궐동이라는 명칭을 쓰기 싫어합니다. 원래 금암동이었는데, LH에서 궐동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 동네에서는 원래 이름인 금암동으로 돌려달라고 난리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정혜영 (도시재생, 주거환경 분야)

제가 아침 8시 15분쯤 궐동에 도착했어요. 말씀한 대로라면 초등학교는 엄마들이 차로 등하교를 시키니까 엄청나게 막혔어야 할 것 같은데 별로 막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도현 (오산시의원)

보통 고학년생들은 걸어오고 저학년생들은 태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호초등학교 큰길 쪽으로는 차를 세우지 않습니다. 차를 뒤쪽으로 와서 세웠다 돌아가죠.

저는 주로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대로변 상가 10개 중에 5~6개 정도는 문을 닫았어요. 영업을 안 해요. 안쪽은 더 심해요. 저도 오랫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불법 건축물을 철거 안 해요. 저는 건물 쪼개기를 없애려고 하는데 계속 얘기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주차 문제, 공영 주차장에 야간에 차를 안 대요. 도로에 댑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에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돈을 조금이라고 더 벌겠다고 무료개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죠.

김영일 (공원 및 녹지 조경 분야)

녹지가 엄청난 자원이라는 한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공원이 이렇게 넓은데 거의 손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사람이 안 간다는 걸 테고, 사람이 안 가니 시에서도 굳이 신경을 안 쓰는 요인이 될 테고, 그러니까 우범화 되고 어두워지고 이런 건데, 근본적인 고민을 따져보면 사람들이 공원에 갈 여유가 없는 거겠죠. 저에게는 그렇게 보입니다. 봄이든 여름이든 제일 많이 가는 게 공원이고 산책이고 트레킹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유가 없어서겠죠. 공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공원에 나갈 여유조차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문제인 거죠.

우범화되고 어두워지는 걸 해결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조금 밝게 만드는 방식과 하드웨어적으로 밝게 만드는 방식, 두 가지가 있겠죠. 그건 정비의 문제일 텐데 근본적인 고민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공원을 리뉴얼한다 한들 사람들이 가겠냐는 고민하고 연관이 되죠. 이 공원들은 만든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리뉴얼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게 어려우면 야간 조명이나 하드웨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프트웨어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외국에는 커뮤니티 정원 텃밭이란 것이 있어요. 저소득층 동네의 낙후된 공간에 씨를 뿌리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관계를 만들면서 지역을 다시 밝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어떻게 공원으로 나오게 할 건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커뮤니티 정원은 주로 먹거리를 많이 했었죠. 초기에는 식량 문제가 주된 이슈였는데, 도시에서도 영향이 있어요. 사실 경작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경작하는 텃밭이 미관상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 새롭게 만들어진 아파트 주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가꾸어진 공원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요. 어르신들한테는 경작하는 공간이 더 중요한데, 이게 공원이기 때문에 경작하면서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거냐' 아니면 '오롯이 경관이나 여가 목적의 공원을 만들 거냐'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취재했던 공동체 정원의 경우는 단순히 정원 가꾸기를 하는 사람만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곳에서 당근마켓도 할 수 있죠, 아까 본 수첩 쓰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담기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행정이 쉽지 않은 거죠. 담당 영역 외의 일이라거나, 다른 문제와 엮이는 게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는 작은 공원이 아니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고민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학 위주의 텃밭 위주로 갈 거냐, 아니면 경관 위주의 공원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공원의 활용 방향이 달라질 테니까 그런 고민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외국 사람들이 많다는 게 단순히 그들을 대상으로 치부하지 않을 거라면, 예를 들면 이런 간담회 자리에도 중국분이 한 명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국인들도 리더가 있어서 그분들을 조직해서 현장에 데리고 다니니, 이런 자리에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분들 관점에서 공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입장

에서는 타국에서 느끼는 벽이 있을 테니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무섭다는 인식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에서 시작해서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풀어나가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정민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참고로 FGI 때 만나 봤던 분들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산에서 하는 세계 문화 축제를 좋게 평가하셨어요.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나,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여쭙았는데 '우리는 좋다',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여하고 도움 주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지역은 자체적으로 행사나 축제를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일 (공원 및 녹지 조경 분야)

아까 그 공원에서 김밥 봉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 메뉴로 봉사 음식을 해본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잖아요.

정혜영 (도시재생, 주거환경 분야)

파주에서 2년간 지역 사업을 했었는데, 외국인 중에도 메인이 아닌 서브 외국인들이 사는 곳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나오게 하려니까 방법이 없어서 매주 토요일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근데 명부에 이름도 안 쓰고, 여기서 먹고 가라고 해도 집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쓰레기를 캐리어에 통째로 버리고 튀는 바람에 너무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한글을 못 읽어서 발생했던 일인 거죠. '쓰레기를 여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구를 못 읽어서, 그런데 이런 문제가 2년쯤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소통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주민들도 외국인들이 동네 축제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외국인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와서 소통을 해주는데도 얘기가 잘 안 통하니까요. 인지된 것은 둘째 주 토요일 날 도시락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재활용 식기를 센터로 반납하면 과자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대충 카운트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다, 나이대는 얼마다. 그리고 제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14평짜리 방에서 남자분들 21명이 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잘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사실 밥이 외국인들하고 엄청 친하게 만들지는 못 했지만, 그분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죠.

저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곳에서 이 지역의 건물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공공이 여기를 커뮤니티 블록처럼 관리하고요. 예를 들어 용인은 반도체 센터 클러스터가 되면서 업자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받으려고 다시 건물을 막 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파트 건설이 끝나면 일용직 노동자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가 폐허가 되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GH에서 이런 걸 매입해서 1인 가구 복지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주현 (1인 가구 지원 분야)

저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공공에서 축제를 열거나 행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원이 그렇지만 구심점이 돼 줄 활동가들이 필요하죠. 대학생들은 스펙이 되는 것 때문에 감수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과정에서 중국 교포들이나 외국인들이 같이 축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큰 행사가 아니라 일회성 행사라도 자잘하게 자주 하면 서로 눈에 익어서 안부라도 묻게 되거든요. 활동가를 발굴하지 못하면, 기관에서 맡아서 먼저 시작하면서 동시에 활동가들을 양성하거나 발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합 공간을 만드는 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자원의 한계도 있고. 게릴라성으로 한 스팟에서 돛자리마켓을 한다든지 캐노피를 치고 계속 뭔가를 하면, 이 시간에 이 곳에 가면 뭔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심점이 될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년 네트워크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오산에서 활동하는 분은 몇 없고, 게다가 궐동 보다 오산 전체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분들이 더라고요. 그래서 궐동은 청년에 국한하지 말고 주민분들이 활동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양성하는 건 어떨까 생각해요. 거창하게 교육받고 이런 거라기보다 축제 기획을 맡긴다든지 다 같이 만나서 무언가를 도모하는 자리라든지. 커리큘럼이나 뼈대는 잡아놓되 무언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니까요. 이런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옥희 (복지 및 지역 협력 분야)

작년에 솔루션 회의를 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은 외국인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막막함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받은 솔루션을 토대로 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보고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저는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 1인 가구와 동네 주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는데, 활동가들이 함께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공원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지역 마켓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궐동 주민들이 경험이 많지 않아서 뭐 하나를 해보면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어, 또 다른 걸 하면 이것도 좋네, 이런 의견을 주세요. 우리 주민들은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도 해보자 생각했어요.

4월에 아나바다 장터를 '봄날 장터'라고 이름 지어서 진행했는데, 광성교회를 통해서 지역 셀러를 모집하고 주민들과 같이 기획하고 준비해서 장터를 열었어요. 그때 공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해서 대신 교회 주차장을 빌려서 진행했죠.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지역은 외국인이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은데 이분들을 배제하고 갈 수는 없어요. 이분들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민했어요.

지역에 계속 나왔던 이슈 중 하나가 쓰레기 문제였어요. 환경 분리수거가 잘 안 돼요. 아까 파주 사례처럼 한글을 몰라서 그러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7월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었어요. 환경 캠페인도 '내가 분리수거를 안 했잖아'라는 형태로 가면 외국인분들이든 한국분들이든 낙인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겠다 싶어서 '놀이와 문화'로 진행했어요. '재활용품으로 놀 수 있어요'라는 행사를 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에서 진행했는데, 너무 덥기도 했고 퇴근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들리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서 평일 저녁에 진행했어요. 이런 시간에 한 건 저희도 처음이었어요. 저녁 5~7시까지 2시간 정도 바짝 했는데, 지나가는 분이 60명 정도 참여해 주셨고, 외국인들도 참여해 주셨어요. 폐건전지를 제출하면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드리고, 시 환경과에서 한국어와 외국어로 번역된 리플렛을 가져다 나눠드렸어요,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반응이 좋아서 올 10월에 확장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산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분이 계셔서 의견과 자문을 구하면서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당사자분들을 활동가로 키우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교육하고 그분들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가르쳐주는 형태로 진행해봤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기관에서 하나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주안점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궐동에 주민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자 꿈입니다. 그래서 공유 공간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볼 계획입니다. 1인 가구 당사자가 운영위원이 돼서 공간을 관리하는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1인 가구 분들이 식이가 잘 안 돼요. 최근에 15일 동안 굶어서 쓰러진 채로 있다가 강제 개방으로 발견한 경우도 있어요. 최소한 '식'에 대한 걱정은 없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에 라면을 배치해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꿈꾸고 있어요. 욕실까지 딸린 공간만 마련된다면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는 1인 가구 당사자들이 동네의 이슈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를 로컬브랜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많은 게 문제라면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는 것 자체가 로컬브랜딩이 아닌가,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로컬브랜딩일 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변화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경환 (사회복지, 로컬브랜딩 분야)

복지관이 궤동에서 애써서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쌓여갈 거라고 봅니다. 사실 공간과 관련해서 현재 없는 게 아니죠. 공간은 있지만 어떻게 개방할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광성교회나 궤리사가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 곳 없는 동네가 천지죠. 광성교회만 해도 사용할 공간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들과 활동가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이런 공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토론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죠. 근데 주민들이 해보려는 의지가 있어도 궤리사하고 광성교회가 협의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시의원님들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면 잘 될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을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 걸 안 하면 동네에서 더는 교계 확장이 어렵다는 걸 명확히 느낄 때 공간을 개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빈 점포들은 사유지로서 장기임대를 할 수 없지만, 청년 창업을 지원해 준다든지 연결할 수 있는 관련 사업들이 있죠. 옛날 고시촌이 있던 서울 관악구 대학동은 서울대가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차리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었죠. 현재 궤동에는 공간이 있으니 세밀하게 연결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건물을 새로 짓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끝날 때, 이 아젠다가 공약에 들어가게 하는 작업은 의원님들과 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바로 공간을 만들자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작업하면 되죠. 그러면 2~3년 후에는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저는 공간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내년에 새로운 거버넌스가 형성될 때 남천동 주민들이 힘을 발휘해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전통적인 리더들이 일을 시작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동네 주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으시거든요. 결국은 협의회를 만들어야죠. 동네 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게 소프트웨어 쪽에서 축제를 논의하도록 하는 거죠. 무슨 축제를 할 거야, 어디에 논의를 붙일 거야, 이렇게 생겨야죠. 전통적인 리더들이 해보고 싶은 거 4~5개, 플리마켓이나 여름철 물놀이장 같은 걸 성공시켜 놓고 모이자고 하면 다 모이시거든요. 사실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랑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도현 의원님이 그런 걸 다 파악하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너 분만 협의회에 참여하면, 그러면 20명 금방 나오세요.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주 개방적이거나 민주적이거나 의사소통을 잘하거나 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도 싸우고 난리겠지만, 그래도 협의체가 있어야 일이 된다는 거죠. 그걸 유지하는 게 힘이에요. 공간은 그렇게 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결될 거라고 봐요.

저는 오산에 짧게 있었지만 브랜딩 하면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요' 밖에 안 떠올라요. 궤동의 브랜딩이 뭘까. 수도권 근대사의 가운데 있는 이런 복잡한 공간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역 분들이 '우리끼리 재밌어'라는 자부심이 마음속에 브랜딩 될 때 저는 이 동네가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인 데이터에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긴 하죠. 그리고 1인 가구, 외국인, 상인이 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작은 거 하나씩 리스트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민 FGI를 보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센터도 있어야 하고, 또 다른 것은 한글이에요. 문화센터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하고 내년에 여기에 한글 교실 하나 열면 되는 거죠. 1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가구는 사실 단순하거든요. 집단 급식소예요. 나오고 싶을 때 나와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거기서 소통이 되면 식을 전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산에 집단 급식소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서는 조건을 갖

추면 내줍니다. 집단 급식은 기본적인 허가 사항이 있는데 광성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보통 그 정도 규모의 교회는 안에 급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많이 하고 있죠.

정혜영 (도시재생, 주거환경 분야)

지속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공원에서 이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냉장고, 사실 어렵지 않고 허가만 해주면 공원 안에도 조그맣게 설치할 수 있어요.

전예슬 (오산시의원)

지금 관하고 협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남촌동에도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가 많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축제하면 저희는 1년에 몇천만 원 드려요. 단체마다 활동이 산발적으로 많은데 교류나 협력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장옥희 (복지 및 지역 협력 분야)

남촌동 협의체에는 제가 들어가 있고, 자치회랑 통장단과도 접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회 쪽에 축제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문의드렸고, 통장단에는 환경 캠페인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잘 안 됐죠.

전예슬 (오산시의원)

예산이 5천만 원인데, 기타 치는 데 5천만 원 다 쓰거든요. 그런 예산으로, 예를 들면 귤동에서 주기적으로 버스킹 릴레이를 하면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창하게 페스티벌을 꼭 해야 하나 의문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죠.

전도현 (오산시의원)

처음에는 그런 예산이 아예 없었어요. 저하고 정예슬 의원이 동마다 축제할 수 있게 천만 원 정도 집행했었죠. 근데 좀 더 늘리자고해서 늘려버린 거고, 동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내라고 했더니 가장 편하게 노래자랑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저는 노래자랑이든 뭐든 하다 보면 경험이 쌓일 거고, 그 경험으로 각 동마다 문화적 역량이 쌓이면 바꾸라는 거예요. 각동에 오래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죠. 축제는 8개 동 단체하고 같이 합니다. 이제 체육회까지 9개 단체지만, 서로 역량을 쌓고 협력해서 만드는 거죠. 그냥 말기면 돼요.

5천만 원 줄 테니까 노래자랑 해봐, 그러면 세팅하고 사람 뽑고, 아주 쉽죠. 근데 난이도를 높여서 개막 공연이나 전체 일정 같은 디테일한 걸 짜라고 하면 역량이 안 되니까 못 해요. 그래서 우선 역량을 높이고, 남촌동 자치위원들과 만나서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면서 남천 구역에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게 하는 거죠.

전예슬 (오산시의원)

그런 거 풀 때는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소통이 편하실 거예요

전도현 (오산시의원)

그렇죠. 의원들 끼고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장옥희 (복지 및 지역 협력 분야)

공원에 풀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ㅎㅎ

전예슬 (오산시의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놀랐거든요. 공원이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라정민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1인 가구와 FGI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 중에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근로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자리만 있으면 나도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김홍길 선생님에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런 지원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장옥희 (복지 및 지역 협력 분야)

지역 주민들의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 상태나 마음 건강 상태로 풀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2~3시간만 근무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삶이 조금 나아질 텐데, 그런 일거리나 2~3시간 급여를 주는 시스템도 없어요.

김홍길 (사회적경제, 공공 분야)

그거는 정규직이 아니고 유연 근무자 모두를 가지고 있는 일자리인 거잖아요. 내가 고용주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고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다만 사회 서비스나 돌봄 복지 영역에서는 경력이 단절되어있는 비경제 인구들이 아이들을 키워놓고, 아이들이나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6시간 정도 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해요, 장애인이나 요양원과 관련된.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수요·공급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활성화라고 하면 내발적인 관점과 외발적인 관점이 있잖아요. 이 공간은 텅 비어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원들을 연결해서 발전시킬 요소가 잘 보이지 않아서 조금 더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사회적 변화 때문에 슬럼화되고 있는데, 더 나빠지는 걸 방지할 건지 아니면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 방향을 잡고 몰입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무중력 시대 같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식주 기본 요소를 충족하는 공간 외에는 없더라고요. 집, 식당, 빨래방 정도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의 욕구 혹은 피로와 관련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외국인과 외국인 간에 만나거나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국제적인 요소가 됐든 교육적 요소가 됐든 아니면 문화적 요소가 됐든 공유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빨래방은 사람들이 나와서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마음을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선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구인 구직과 관련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 같은 데서 장을 본다든지, 그 시간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확장하는 매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었어요.

아까 전도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는 주거 지역과 이질적인 배치지만, 중국 문화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교 문화 의식이나 제례 혹은 의상 같은 것들을 외국인이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하면 외부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요소나 동기가 되겠죠.

저는 소프트한 거 하나 생각해봤어요. 저 공간이 다문화적 요소가 있고 많은 상가가 비어 있는데, 밤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범죄 예방 디자인을 하겠다고 벽화를 그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전신주 아래에 조명을 쏘는 방식을 생각했어요. 이곳이 다문화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간이라면 그

들의 언어를 야간 조명으로 싸준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향이나 가족이 생각나고 외로울 때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걸어보는 문구 같은 것들이 조명 안에 들어 있다면 이곳에 나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만들고 확장하면 다문화인들을 환대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항상 다양한 언어를 배치해서 안내하면 사람들이 범죄를 할 마음도 조금 줄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렵지 않게 조금씩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축제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에 과감하게 돈을 썼다가 낭비만 하게 되면 리스크가 클 테니까요. 오히려 작지만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혜영 (도시재생, 주거환경 분야)

이곳에서 3년만 하라고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복지관에서 몇 명이 담당하고 계세요? 제 생각엔 3년 동안 청년 활동가 3명, 복지관 2명 정도가 활성화 프로젝트를 한다면, 아침에 출근해서 드림 프로젝트 진행하고 데이터 만들고, GH는 비어 있는 공간 몇 개 사고, 어르신들과 꽃 보면서 도시락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동네가 조금씩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주현 (1인 가구 지원 분야)

남양주에서 계약직으로 청년을 고용해서 그 친구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청년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거였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구나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왜 돈까지 주면서 해야 하지 생각했었는데, 그 안에서 발로 뛰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리가 잡혀서 운영되더라고요. 그렇게 초빙이나 고용하는 방법으로 몇 년 동안 지속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홍길 (사회적경제, 공공 분야)

재생하는 데 보통 10년씩 걸려요.

라정민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그런 쪽으로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경기문화재단의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있어요. 문화재단, 복지관, 그리고 사업비로 한 명 더 해서 셋이 뭔가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 (도시재생, 주거환경 분야)

'로컬라이즈'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천 동구는 도시재생이 끝났는데 상권까지 활성화 되지는 못하거든요. 동구에 있는 청운대학교에서 그곳에서 로컬라이즈를 하고 있거든요. 오산대학교 로컬라이즈 경우 창업 지원으로 빈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면서 저녁에는 공유 주방처럼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열어주는 방식으로 협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라정민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오산은 고독사라는 이슈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규모의 저렴한 주거지가 오산에 몰려 있고, 고독사 때문에 오산 전체가 문제의 지역이라고 얘기되고 있어서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푸는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공원에서 행사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못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시 전체가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 저희 연구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주현 (1인 가구 지원 분야)

오산시에 있는 청년 정책 협의체나 위원회 분들과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서 이것저것 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산 청년 활동가분들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무언가 해볼까 하고 공모할 수 있거든요.

라정민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그런데 아예 관심이 없는 그룹도 있긴 해서 소개를 받고 연락을 드렸으면 싶어요.

송주현 (1인 가구 지원 분야)

제가 경기 지역 거버넌스에서 오산의 활동가분을 만났는데, 연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양주는 청년 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작은 규모로 많은 사업을 해서 활동가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접근하기는 좋죠. 경기문화재단에는 '모든 공간 31'처럼 자잘하고 접근하기 쉬운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청년 공간에 활동비를 30만 원 주고 활동해라 이런 것도 있고, 간식비라도 받으면 공간에 사람들이 더 드나들게 되니까 이런 걸 접목해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라정민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모든 공간 31' 사업은 궤동에 있는 '실험실 카페' 사장님하고 협의가 되면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시피 개발이나 먹을 것을 시험하면서 시작해 볼 수 있겠죠.

송주현 (1인 가구 지원 분야)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따서 내려줄 수도 있죠. 민간 공간은 지원금이 몇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남양주시 문화의 집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몇백만 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장옥희 (복지 및 지역 협력 분야)

저희 복지관은 축제 할 때 최대한 돈을 아껴야 해요. 시에서 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돈을 벌어서 해야 해요. 이번 축제에서는 양말목 구입에 10만 원 쓴 게 다예요. 환경 축제여서 배송 온 양말목 포장 상자 뜯어서 거기다 매직으로 글 써서 활용하고, 복지관에서 테이블이랑 텐트 들고 나가서 진행했어요. 축제 때 양말목이 남아서 10월에 또 쓸 수 있겠다, 이러면서 고이 잘 넣어두었죠.

송주현 (1인 가구 지원 분야)

청년단체 발굴이 너무 필요한 거 같아요. 시 협조를 구해서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공모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10일 장 같은 것들을 하는데, 사실 공공에서 지원받지도 않는데 왜 해,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 다 좋아해요. 청년 가치 발굴은 좋은 거 같아요.